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책임연구원 : 이민희(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강병로(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시리즈

일련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진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수) 주동범(부경대학교 교수)
09-R16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책임연구원 : 문성호(중앙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임영식(중앙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문호영(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김남정(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한지연(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09-R16 -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	책임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09-R16 -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 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책임연구원 :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강병로(카톨릭대학교 박사과정)
09-R16 -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책임연구원 : 최순중(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 조남익(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과제인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의 하위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자존감과 직업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와 이에 따른 시설, 프로그램, 지도인력, 전달체계,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체계, 사회 진입체계, 사회적 기업과 같은 자활체계 등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로는 한국과 외국의 대안교육정책과 사례와 현황 연구,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연구, 청소년기관에서의 직업역량 및 진로역량 개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사연구로는 현행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실태조사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수행과정과 함께 병행하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대책에 대한 전문가 포럼과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교사 및 정책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1)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

청소년정책의 이념인 ‘청소년육성’은 기존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토록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안교육정책이 청소년정책과의 강한 연계성이 있음을 밝혀내고 그의 의미와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110개나 되는 위탁기관 대안학교들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쉼터, 소년원, 청소년단체 등과 같은 기존의 민·관 청소년기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교육정책의 입장에서 청소년정책의 영역과 내용을 교육적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안학교의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전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조사

현재 교육기술과학부로부터 위탁된 124개의 대안교육 기관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소년원 등과 같은 전국의 15개 대표적 청소년기관에 전일제 또는 단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실태,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지도인력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시설환경, 프로그램, 지도인력, 운영체제, 만족도, 진로성과 등으로 나누어 교사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여 진로성과에 대한 관계성과 성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철학과 미션에서 보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대안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본 내용을 토대로 생각할 때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도전과 고민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인정, 실질적인 지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셋째, 청소년기관과의 관계에서 청소년기관에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 청소년기관에서의 자율성(독립성)과 자원 등의 활용성에서의 적절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넷째, 대안학교 운영의 측면 역시 재정적인 부분은 대안학교 운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안학교 주체의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에서 볼 때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조사대상의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외형적으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하자 등) 일반교과와 특성화교과의 양대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외국의 유사 사례 소개와 관련 외국정책의 비교분석

외국의 사례로는 독일과 영국의 청소년관련 시설과 기관들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업역량 개발의 사례들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에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의 진로 개발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사점들이 검토되었고, 대안교육의 정책적 전략과 모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독일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 사례에서는 정책 모델로서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이 마련한 청소년들의 노동세계로의 통합을 위한 한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서의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사업”이라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얻어진 인식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참여자들의 새로운 협력과 협력관계의 질에 대한 요구이다. 즉, 노동세계와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은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청소년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안들 사이의 조정의 어려움을 혼자서 하거나 또는 이론으로만 해결하려하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세계와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은 결국 여러 차원에서 중개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영국정부의 1970년대 중반의 청소년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1975년부터 직접 개입을 시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개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재활 보조금(RSSL) 지급,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근로체험 프로그램(WEP),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들이다. 영국 정부가 조기에 청소년 실업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실업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청소년실업 문제의 해결의 비용이 치료비용보다 적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4)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방안 제시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기존의 학교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기관에 위탁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여 자존감과 직업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센터 개설 및 운영,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최근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Wee Project)’의 Wee Center 및 Wee School 등과 연계,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정책적 전략들로 제시되었고, 이와 함께 정책모형도 개발되었다.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방안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담당자들을 면접한 결과를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겠다. 하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역량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십 등의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이다.

(1)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학교복귀를 위한 역량개발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대다수의 대안학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진학으로의 동기부여가 매우 낮기도 하고, 교사인력 등을 볼 때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대안학교의 목표로 설정할 여건과 능력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진학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대학진학이나 기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제도권 학교나 학원과 같은 형태의 교과과정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공통 주요 교과목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향후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학교복귀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거나, 교양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지만 차차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음을 정돈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를 준비하는 과정과 내용을 담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2)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제도권 학교를 다니거나 특성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이 인정되고, 또 이들은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아 졸업하게 되면 직업을 얻는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고, 직업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안학교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책무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묶어두는 의미정도로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의 역할을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바로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의 전략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수요자 측의 기대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전략적 기획으로서의 정책방향 선택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의 내용은 수요자 측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방향은 비록 직업능력의 개발로 맞추어져 있지만,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은 항시 열어 놓고 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고, 정책의 전략 요소들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센터 개설 및 운영, 기

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위센터(Wee center)와 연계 직업훈련 Wee school 대안학교로의 전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대안교육의 대두	3
2) 한국의 대안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3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필요성과 목적	4
2. 연구내용	5
1)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2) 전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조사	6
3) 외국의 유사 사례 소개와 관련 외국정책의 비교분석	6
4)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방안 제시	7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조사연구	7
3)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개최	7
4. 연구의 기대효과	8

II.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정책의 연계

1.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정책 연계의 의미와 필요성	11
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안교육적 가능성	14

III.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조사	21
1) 조사계획서	21
2) 조사결과	34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현황 조사 분석	96
1) 면접결과분석 소결	96

IV.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외국사례	
1. 독일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07
1) 독일 청소년 역량개발의 청소년 정책적 기초	107
2) 독일 청소년의 취업 관련 일반 현황	108
3) 정부의 model program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사업”	111
4) 독일의 결손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시사점	116
2. 영국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19
1)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노동시장 개입 정책	119
2)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고용 대책	120
3)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시사점	125
V.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방안	
1.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	131
1)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학교복귀를 위한 역량개발	132
2)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134
2. 역량개발 정책의 전략	137
1) 진학 정책방향과 직업역량개발 정책방향의 선택	137
2) 직업역량개발 정책을 위한 전략	138
3. 역량개발 정책의 모형	149
VI. 결론 및 제언	157
참고문헌	163

표 목차

<표 I-1> 기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26
<표 IV-1> 독일의 실업과 무직 현황	110
<표 IV-2>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실업자수와 총 실업자 수 비교	120
<표 IV-3> WEP 참가후 고용 상황(1978)	122
<표 IV-4> YOP 참가자 및 연평균 직업훈련자 수 (1979~1983)	123
<표 IV-5> 3가지 유형의 YOP 참가자 수(1978~1983)	124
<표 IV-6> YOP 참가후 청소년 고용 상황(1980~1983)	125

그림 목차

[그림 I -1] 2006년 말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로 현황	15
[그림 IV-1] 독일의 청소년(17~25세) 진학률(%)	109
[그림 IV-2] 독일의 청소년(17~25세) 취업률(%)	111
[그림 V-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모형	1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기대효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대안교육의 대두

19세기 이후 국가가 교육을 공적으로 제도화하여 산업화와 사회화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학교를 하나의 제도로 도입한 이후 학교교육은 공적 제도로써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어 지금까지 대표적인 교육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고, 교육이 그의 본질에 내재적으로 자율과 자유를 기초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구화된 공교육과 갈등을 빚을 수뿐이 없음이 역사 속에서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가 등장함으로서 표면화되었다.

서구 유럽에서 비롯한 공교육 제도가 20세기 미국의 자유학교운동(free-school movement), 영국의 서머힐학교(Summerhill School), 독일의 발도르프학교(Waldorfschule) 등의 대안교육을 통해 부단한 자아성찰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교육은 최악의 공교육 제도 상황을 직면하여 21세기를 전후해서야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게 되었다.

2) 한국의 대안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997년 간디청소년학교를 시작으로 출발한 대안교육은 이제 국가에서 정규학교로 인가된 특성화 대안학교가 29개교이고 2001년부터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위탁한 대안교육 기관들도 110개(2006. 06 현재)로 늘어났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양적 증가는 기존의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중심의 실험적 교육으로 교육의 과정은 생태학습, 여행학습, 수련학습, 문화학습, 인권교육, 평화교육, 인문학습 등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의 설립취지와 교과과정 목표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교과과정을 통해서 상급 학교에의 진학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거나,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2006년도에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특성화 대안학교는 대학교 진학률이 90%, 위탁 대안학교는 67%에 달한 반면, 비인가 위탁 대안학교는 전원형이 63%, 도시형이 41%에 그치고 있다. (대안교육백서, 2007)

대안학교 위탁기관들의 현황을 볼 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 중 인가받은 위탁 대안학교의 55%가, 비인가 위탁기관에서는 전원형 대안학교의 93%와 도시형 대안학교의 74%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대안교육백서, 2007) 이들의 역량개발이 늦어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회에 방치됨으로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필요성과 목적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안학교의 설립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2006년 기준으로 110개가 넘는 위탁기관이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4개가 청소년관련 시설,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안학교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나 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사회에 방치되어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가 일천하고 인가와 평가의 기준 및 체계가 미흡하여 난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비인가 위탁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자존감과 직업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도 정비와 이에 따른 시설, 프로그램, 지도인력, 전달체계,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체계, 사회 진입체계, 사회적 기업과 같은 자활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1)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정책의 이념인 ‘청소년육성’은 기존의 교육이 하지 못하는 교육실천을 보충하여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토록 한다는 데에 있어서 대안교육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안교육정책이 청소년정책과의 강한 연계성이 있음을 밝혀내고 그의 의미와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은 거대한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주류 교육에 묻혀 일반화 되지 못하고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만을 위한 비주류의 교육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청소년정책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모든 청소년들 다수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대안학교와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일반화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간디학교, 영산 성지학교, 두레자연학교 등 진정한 ‘대안’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안학교들은 그 교육의 이념이 평등, 자발, 자율, 자결, 참여 등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다르지 않아 다양한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10개나 되는 위탁기관 대안학교들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쉼터, 소년원, 청소년단체 등과 같은 기존의 민·관 청소년기관들이다. 이러한 현황은 교육정책의 입장에서 청소년정책의 영역과 내용을 교육적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안학교의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말할 수 있다.

2) 전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조사

현재 교육기술과학부로부터 위탁된 110개의 대안교육 기관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년원 등과 같은 전국의 15개 대표적 청소년기관에 전일제 또는 단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실태,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지도인력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대안교육의 성과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인 상급학교에의 진학과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에의 관심을 집중해서 전원형이나 도시형에서의 대표성 있는 대안학교들을 선별하여 담당교사와 학생을 면접조사 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수준을 측정하는 한편, 긍정적인 역량개발을 통한 상급학교나 사회진입의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시설환경, 프로그램, 지도인력, 운영체제, 만족도, 진로성과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하여 진로성과에 대한 관계성과 성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외국의 유사 사례 소개와 관련 외국정책의 비교분석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교육 사례에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와 관련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외국의 사례로는 독일과 영국의 청소년관련 시설과 기관들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업역량 개발의 사례들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에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의 진로 개발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사점들이 검토되었고, 대안교육의 정책적 전략과 모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었다.

4)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방안 제시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기존의 학교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기관에 위탁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여 자존감과 직업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센터 개설 및 운영,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최근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Wee Project)’의 Wee Center 및 Wee School 등과 연계,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정책적 전략들로 제시되었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1) 한국과 외국의 대안교육정책과 사례와 현황 연구
- (2)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연구
- (3) 청소년기관에서의 직업역량 및 진로역량 개발 관련 연구

2) 조사연구

- (1) 현행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실태조사
-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 및 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3)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개최

- (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대책에 대한 전문가 포럼 개최

-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교사 및 정책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 연구의 기대효과

- (1)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방향 설정
-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파악
-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및 강화
- (4)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진로기회 확대
- (5) 청소년시설과 학교와의 연계에서 청소년기관이용률 제고

II.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정책의 연계

1.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정책 연계의 의미와 필요성
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안교육적 가능성

II.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정책의 연계

1.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정책 연계의 의미와 필요성

19세기 이후 국가가 교육을 공적으로 제도화하여 산업화와 사회화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학교를 하나의 제도로 도입한 이후 학교교육은 공적 제도로써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어 지금까지 대표적인 교육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고, 교육이 그의 본질에 내재적으로 자율과 자유를 기초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구화된 공교육과 갈등을 빚을 수뿐이 없음이 역사 속에서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가 등장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서구 유럽에서 비롯한 공교육 제도가 20세기 미국의 자유학교운동(free-school movement), 영국의 서머힐학교(Summerhill School), 독일의 발도르프학교(Waldorfschule) 등의 대안교육을 통해 부단한 자아성찰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교육은 최악의 공교육 제도 상황을 직면하여 21세기를 전후해서야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게 되었다.

‘대안(代案; alternative)’이란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보완’과는 달라 완전히 대상을 바꾸어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이 운운되고,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조기유학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학교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1997년 간디 청소년학교를 시작으로 출발한 대안교육은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이제 국가에서 정규학교로 인가된 특성화 대안학교가 29개교이고 2001년부터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위탁한 대안교육 기관들도 110개(2006. 06 현재)로 늘어났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양적 증가는 기존의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중심의 실험적 교육으로 교육의 과정은 생태학습, 여행학습, 수련학습, 문화학습, 인권교육, 평화교육, 인문학습 등 기존

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의 설립취지와 교과과정 목표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교과과정을 통해서 상급학교에의 진학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거나,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2006년도에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특성화 대안학교는 대학교 진학률이 90%, 위탁 대안학교는 67%에 달한 반면, 비인가 위탁 대안학교는 전원형이 63%, 도시형이 41%에 그치고 있다.(대안교육백서, 2007)

대안학교 위탁기관들의 현황을 볼 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 중 인가받은 위탁 대안학교의 55%가, 비인가 위탁기관에서는 전원형 대안학교의 93%와 도시형 대안학교의 74%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안교육백서, 2007) 따라서 이들의 역량개발이 늦어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회에 방치됨으로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정책으로부터 대책마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교육이 참된 교육으로서의 자목적과 자기기능을 상실하고 대안으로 마련된 대안교육정책에서도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여겨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의 대안적 영역으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 ‘청소년육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수행되어온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지식교육에만 몰입해 있는 학교교육정책이 하지 못하는 많은 대안적 역할들을 학교 밖에서 담당해 왔다. 교육을 넓은 의미로 확대하였을 때에 청소년정책은 대안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수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둘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해보자.

먼저 차이점을 논하자면 대안교육은 학교교육정책의 일환이고, 학교라는 제도에 기초하여 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정책은 학교 밖의 생활공간에서 모든 청소년들의 삶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거점과 수행영역의 경계를 말해주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로부터의 차이는 정책대상이 학생청소년들로서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제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두 정책 간의 연계와 협력 없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게 하였다.

공통점을 말하자면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같이 대안교육도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잘못된 현상인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안교육은 학력이 인정되는 특성화 된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비록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지양하는 정부의 위탁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새로운 교육실천으로서 그의 실험적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2007년 3월을 기준해서 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29개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제외한 110개의 위탁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이념과 교과과정의 내용은 비록 그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청소년정책과 대안학교 모두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둘 간의 관계설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안학교의 설립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110개가 넘는 위탁기관이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4개가 청소년관련 시설,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안학교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나 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사회에 방치되어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안학교가 역사가 일천하고 인가와 평가의 기준 및 체계가 미흡하여 난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비인가 위탁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탁기관 대안학교는 일면으로 보면 문제의 대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가

능성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위탁기관 대안학교를 통해서 무엇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자존감과 직업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이에 따른 시설, 프로그램, 지도인력, 전달체계,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체제, 사회 진입체계, 사회적 기업과 같은 자활체계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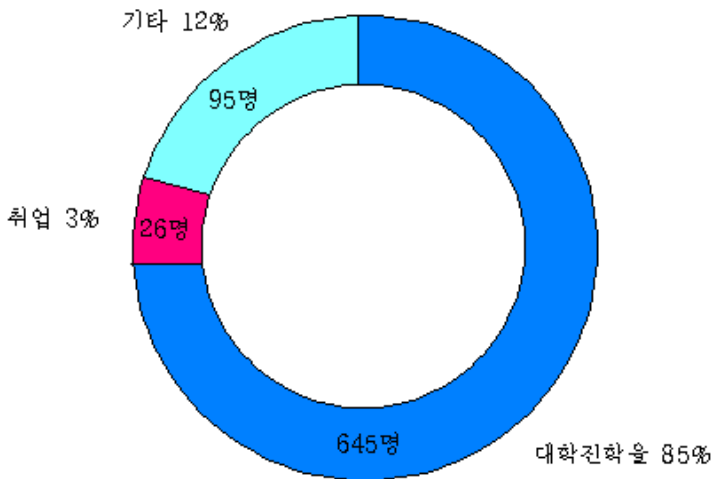
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안교육적 가능성

정상적인 교육의 의미와 내용을 말하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개발의 교육과정은 장차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인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시대에 와서는 교육의 개념 정의를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시대가 변해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弘益人間)’을 형성하는 것에서 이제 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학교라는 공교육제도가 도입된 것도 산업혁명 당시 경제사회적 필요에 의한 역량개발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예나 지금이나 크게 교육에 있어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제의 출발은 우리의 교육이 이와 같은 개개인 학생들의 역량을 제대로 개발시켜주지 못하는데 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 없는 고착된 학벌사회는 개개인 학생들의 모든 역량이 서열화된 대학에의 입학에 따라 영구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서열화된 대학이 실제로 서열순서대로 입학생들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더라도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서서 있는 대학에의 입학이 곧 학생들의 역량을 말해주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는 사회가 우리사회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자신만의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이 오직 대학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거나, 국가의 단 한번 수학능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합격증을 자신들의 ‘역량증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정상적 학교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라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 대안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새로운 역량개발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말해질 수 있다.

2009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의 총 초·중·고 재학생 수는 8,202,037명에 달하고, 학교중도탈락자는 73,493명으로 약 0.9%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중도탈락 학생의 14%정도가 복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가 3,404명으로 교육부 통계에 나타나 있어 복교생 숫자를 감하더라도 60,000명이 넘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안학교는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진학이고, 또 하나는 취업이다.



[그림 I -1] 2006년 말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로 현황

2007년 발행된 「대안교육백서」에 따르면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서 대학에 진학률은 85%이고 취업은 3%에 불과하고 기타가 12%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에 대다수의 대안학교는 진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기존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새로운 대안학교의 교육 및 교과 과정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초등학교과정의 대안학교에서 82%가 다시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 과정의 72%가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나타나 있다. 요약해서 서술하면 85%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다시 고등교육과정의 공교육제도로 최종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진학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문제는 취업이나 기타에 소속한 대안학교 소속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학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60,0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문제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도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대학의 역할 중에는 청소년실업을 묶어 두는 역할도 있다. 또한, 대학의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들이 성숙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키워 실업자로 졸업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행으로 빠질 염려가 중고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즉, 대학으로 진학한 대안학교 출신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고등교육 기간 동안 자신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얻어 그 만큼 취업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진로가 전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대안학교에서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대안학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비록 고등교육에는 못 미치지만 대안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정상적인 취업을 해서 그들의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비행 및 문제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때에 즉, 취업을 통한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에 생존을 위해 범죄에 가담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대안학교가 아무 소속도 없고, 갈 데가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에게 새로운 직업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정상적인 진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안학교는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제도는 전문계고(구, 실업계고), 마이스터(Meister)고를 들 수 있다. 2010년 3월부터 개교하게 될 21개의 마이스터고는 엘리트 전문계고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 제도로 경쟁이 가열된 전문계고 체제라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의 출현으로 인한 직업훈련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에서도 향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제도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대안을 찾는 학생들의 숫자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로 줄어든 수 있다. 하지만 경쟁체제로 인한 중도탈락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에 대한 대안적 직업훈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자본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곧 교육의 격차로, 취업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거나 불안정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미 고착될 대로 되어버린 우리의 공교육체제에서는 대학교평준화와 같은 혁명적 교육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육에 있어서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위탁형 대안학교 중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가능성은 개연으로서가 아니라 필연으로서 주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청소년관련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책무이다. 한국의 많은 초·중·고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제도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제도적 진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권 밖에 학업을 중단한 채로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가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에

서 위탁받고 있는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포기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안학교들 중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수업료도 비싼 귀족 대안학교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시설에서 위탁받아 정부 교육기관에서 관심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데리고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들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비록 재정적으로나, 교과과정, 학교운영, 학생선발, 교사수급, 학부모와의 교육적 관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교육에서 소외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해 준다면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복지적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시설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대안학교들의 실태를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Ⅲ.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조사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현황 조사 분석

Ⅲ.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조사

1) 조사계획서

(1) 배경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형성된 대안학교는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를 통한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공교육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된 110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안학교는 기존에 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29개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대안교육의 이념과 교과과정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소년의 자발성, 자율성,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21개는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역사가 일천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각 기관으로 위탁된 대안학교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는 대안교육 기관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학교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2) 목적

본 조사는 전국의 청소년시설에 위탁된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안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대안학교의 정책적 방향을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개 요

- ① 조사제목: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실태조사
- ② 일정: 2009년 6-7월
- ③ 조사방법

가. 문헌연구 : 현행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실태조사
 나. 설문 및 면접조사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 심층면접조사
 다.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발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④ 조사내용:

가. 문헌연구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운영현황 등
 나. 설문 및 면접조사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의 인식 및 의견
 다.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발전, 청소년 역량강화 등

(4) 대안학교 현황과 주요 내용

① 청소년기관과 대안학교

가. 청소년기관

가)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나) 청소년복지시설: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다) 청소년보호시설: 법무부 소년보호교육기관

※ 참고 :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나. 대안학교 1)

가) 인가형 대안학교

㉠ 특성화학교

㉡ 위탁형 대안학교

나) 비인가형 대안학교

㉢ 중등 - 전원형 대안학교

㉣ 중등 - 도시형 대안학교

㉤ 초등 대안학교

㉥ 통합형(초등, 중등, 고등) 대안학교

㉦ (기타형)학교를 넘어서 - 대안교육의 확장 (“대안학교의 대안”)

다. 청소년기관의 대안학교 유형

청소년기관에 있는 대안학교 유형은 대안교육백서(교육인적자원부, 2007)와 맹영임·김민(2008)이 분류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기관에 있는 대안학교의 주요특징은 인가형/비인가형, 도시형, 위탁형, 정규/비정규형, 통합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기준		유형
학력인가		인가형, 비인가형, 비인가 재택교육형
위탁여부		특성화형, 위탁형
정규 (전일제)	정규형	특성화형, 전일제형
	비정규형	주말 및 계절형, 방과후형, 주말·방과후·계절혼합형, 도서관 및 기타형
학제별		초등형, 중등형, 고등형, 통합형 (초등+중등, 중등+고등, 초+중+고)
지역		도시형, 전원형
추구이념		자유학교형, 생태학교형, 재직응학교형, 고유이념추구형
이용		통합형, 숙박형

1) 교육인적자원부(2007)

현황 유형	위탁형	도시형
일반현황	교육청과 공공기관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협력
배경 및 방향	- 서울시 교육청 중심(2001) - 학업 중도 탈락 학생 문제 개입	서울시 중심(하자센터)(199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모델 청 소년시설 이용의 극대화
운영개요	- 위탁운영: 공공기관 위탁(청소년 수련관 등) - 학사운영은 학교처럼 실제 수업 참여는 위탁기관에서 함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인턴십과 프로젝트 중심의 실험적 운영 - 비인가(학력불인정)
조직현황	- 기존 위탁 공공기관 조직 내에 편입 또는 독립조직화 -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민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
재정	- 위탁기관 시설자원 - 교육청 지원보조금 - 학생 수업료	- 영세한 재정(2억원 이하) - 재정내용: 운영주체보조금 외부지원금, 일반후원금 등
학생 및 가족	- 정규 중,고등학교 학적 보유 학생학교 중도탈락학생	-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운영 - 동기: 부적응 및 자기선택
인력(교사)	- 상근교사 2인 이상 - 기타인력(비상근교사, 전문강사, 자원교사 등)	- 상근교사, 비상근강사 자원교사 등
학사운영	- 대안학교 수료 시 출결,성적, 졸업 등 학사는 원 소속 학교에서 진행	- 중고등 통합 운영 - 통학 또는 기숙형 운영
교육과정	보통교과(최소화) + 대안교과	- 학교 특징에 따라 다양한 학습 - 탄력적 교육과정 및 일과과정 운영 - 검정고시 준비과정 -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설환경	- 최소 교육시설 확보 기준 마련 - 기존 공공기관 시설 (청소년시설 등) 활용	- 기존 청소년기관 활용
지역사회 및 교육지원 체계	- 대안교육종합센터(서울) - 대안교육지원센터(부산 등) - 대안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대안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자원 활용
통합형 대안학교	- 배경: 학습자의 시공간을 무한대로 확대, 교육의 지속성과 연속성 학습자의 성장발달과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과정의 융통성 평생학습으로서 통합형 학교 모델 지향 - 학제운영: 학제통합 운영, 학기제, 학년제, 무학년제 등 - 특성: 통합형을 위한 대안학교 간 네트워크 - 교과과정: 개별 학습자에 맞는 탄력적 시스템 운영	

② 기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현황

위에서 제시된 청소년기관에 있는 대안학교 유형 중 청소년시설에 대표적인 형태는 위탁형(인가/비인가형 포함), 도시형, 통합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기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 -1〉 기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구분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전반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교육 모델	·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배경 및 운영 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모델 개발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확대(기존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서비스 제공) · 다양화, 특성화, 대안모델 제시 ·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모델 제시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 모델 창출	· 대안교육의 공공적 성격의 취약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 학력 불인정 · 위탁운영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운영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미흡	· 대안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전개 · 학력인정 방법과 대안학교 공존 방안 모색 · 특별지원청소년의 통합교육(예를 들면 장애청소년,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대안학교의 개발 · 대안학교 특색 살리기 및 특성화 적성개발 · 미인가 대안학교의 위탁기 지정 및 지원
재정	· 공교육비 운영(학생부담 최소화)	· 비인가로 인한 열악한 재정 ·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이용자 부담금 한계	· 재정지원 체제 개선 및 열악한 재정 자립을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화 · 대안학교 자체 재정 자립을 위한 자구책 ·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2007년부터 시작)
학생 및 가족	· 학생에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부여 · 학업 중도 탈락 위기 문제 해결 · 진로 및 취업 탐색, 창업 기회 제공 · 경제적 어려움 있는 학생에게 후원자 개발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진로와 취업의 한계(상급학교 진학 미흡) · 학생지도의 어려움(위탁된 대안학교 학생과 기존 평생교육 학생이 공존) · 졸업이후 진로문제, 사회적 소외감, 비싼 학비 등	· 저소득층 청소년이 대안학교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 청소년과 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확대 · 나홀로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생활지도(대학생 멘토, 지역사회 연계 등)

인력 (교사)	· 학생 대비 교사 자원(상근, 비상근, 자원 교사 포함) 풍부 ·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생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고 지도에 용이 · 다양한 사회적 어른의 참여 · 자신의 성장의 기회 및 동기부여	· 교사의 자질 저하 · 수업과중 및 상근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 열악한 근로환경(낮은 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 학교철학에 대한 고민, 학부모나 동료교사와의 관계형성 미흡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순환근무제 등) · 교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역량개발, 연수 · 다양한 자원교사 발굴(멘토 지원)
학사 운영	· 대안교과 및 특성화된 교과운영	· 대안교과의 제한적 운영과 특성화 교과 부족	· 체험학습 및 직업교육 등 특성화된 교과 개발
교육 과정	· 별도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보장 · 일반학교 교과과정이 아닌 매우 다양한 특성과 학습 욕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의 탄력성(시간, 내용 등) · 자기주도적 학습(프로젝트, 인턴십 등) · 전문가가 개별적, 통합적 복지서비스(상담, 치료, 학습 등)제공(청소년지도사 등)	·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기에 태생적 한계	· 대안교육 연구 및 지원센터 역할 강화 · 대안학교와 시민사회의 협력 구축 · 대안교육의 발전전망에 대한 연구 및 모델개발 활성화 ·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적 개입 필요함 · 대안학교에 맞는 교수 및 학습 모형 개발(학생참여형, 연구형, 네트워크 형 등)
시설 환경	· 기존 공공기관 인프라 및 자원 활용 극대화	· 평생교육시설 환경의 열악함	· 청소년기관내 대안학교 공간 제도화
지역 사회 및 교육 지원 체계	· 대안교육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 · 교육의 네트워킹 강화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 지역사회 접근성 및 네트워킹 부족 · 지역사회 특수성 반영 미흡	· 대안학교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킹으로 연대 · 지역사회 대안학교 네트워킹 구축 · 법체제 일원화: 대안교육 지원특별법 제정 · 중앙과 지방에 대안학교 전담부서 확충 · 청소년정책과 연계 및 협력 체제 수립 · 공교육과의 관계정립 모색

※출처: 손영이(2004), 조자하(2006), 교육인적자원부(2007), 맹영임·김민(2008), 김형선(2008), 장분도(2009)

(5) 조사방법

① 문헌연구

가. 제목: 현행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실태조사

나. 내용: 『기관운영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기관명, 설립년도, 연혁, 조직, 법인현황 연락처, 홈페이지, 찾아가는 길
배경 및 방향	설립이념, 비전, 사명
운영개요	대안학교 유형 위탁현황(위탁주체, 위탁을 준 기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위탁년 도, 위탁기간, 위탁형태, 위탁 시 지원규모)
조직현황	청소년기관 조직 구성,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재정	기관 전체 연간 재정 규모(세입 및 세출), 기관전체 예산대비 대안학교 예산비율 등
학생 및 가족	입학자격 학생,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학생 위탁 사유, 학생 수, 학 급수, 학년,
인력(교사)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강사, 자원인력 등 교사선발과정, 면접담당자(팀장급이상), 인적사항,
학사운영	학적, 출결, 졸업, 성적평가, 위탁해제, 수업료, 위탁기간 통합형 학제 운영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과과정, 특성화 교육 등
시설환경	대안학교 운영공간, 운영시간, 장비 등
지역사회 및 교육지원 체계	대안교육지원체계(대안교육종합센터, 지원센터 등) 대안학교 간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사업연계여부, 사업연계인식, 연계사업, 연계기관 등 서비스 전달체계, 제도권 교육과 연계체계, 사회진입체계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체계 등

다.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10개 중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18개
소(2009년 기준)

라. 방법 : 문헌연구 -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시도교육청 현황, 대안교육백
서, 기관별 현황(홈페이지, 기관별 운영보고서 등)

② 설문 및 면접조사

가. 제목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 심층면접조사

나. 내용 : 조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교사에게는 비구조화된 면접 기록지를 활용하여 면접을 수행하고, 면접 수행을 위하여 훈련된 조사원(연구원)이 1:1 면접을 하여 면접기록지에 내용을 기록하였다. 필요할 경우 기관에 협조하여 녹음 및 촬영을 실시하여 추후 분석에 활용하고, 면접시간은 약 2시간으로 진행하며 면접지침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였다. 면접지침(초안)은 아래 내용과 문헌을 참고하였다.

가) 대안학교 전반 :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백서(2007),

나) 대안학교 정책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교육청(2006), 경상북도교육청(2008),

다) 기존 대안학교 현황 : 손영이(2004), 교육인적자원부(2006), 조자하(2006), 김형선(2008), 대구광역시 교육청(2008), 하태욱 외(2008), 허정숙(2008), 장분도(2009), 대안교육종합센터(2009)

라) 청소년기관과 대안학교 : 맹영임·김민(2008), 이엘리아(2008)

영역	세부사항
일반적 사항	· 기관명,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위, 지역, 직장경력, 대안학교 관련 경력, 기관유형
배경 및 방향	· 설립배경, 설립 시 주도적 역할 주체, 설립이념, 비전, 사명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 운영의 인식, 적합성, 관련성 정도 ·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운영개요	· 대안학교 유형과 설립과정, 현재 운영상황 · 위탁운영의 내용과 문제점(위탁주체, 위탁을 준 기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위탁년도, 위탁기간, 위탁형태, 위탁 시 지원규모) · 청소년기관에서 대안학교 운영의 장점, 보완점 등
조직현황	· 청소년기관전체 조직과 대안학교 조직의 구성, 업무협력체계 · 대안학교 조직의 운영 자율성, 독립성, 권한 등
재정	· 재정상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외부지원금, 후원 금 등) ·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이용자 부담금 한계 ·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 기관자체 재정자립 추구책 등

학생 및 가족	- 학생 선발 및 위탁 과정 - 청소년, 친구, 가족, 교사에 대한 인식, 태도, 관계 등 - 청소년의 대안학교에서 변화 내용(개인적, 친구, 부모, 교사의 관계 변화 등) -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만족도, 참여정도 등 - 학생지도의 어려움: 학사지도(출, 결, 성적 점검), 생활지도, 역량개발, 진로 등 - 청소년이 대안학교에 대한 욕구 또는 바라는 사항
인력 (교사)	- 교사 채용 및 관리 내용 -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교육이념, 목표, 교육과정, 교육시설, 대안학교의 미래 등 - 교사가 대안학교에 대한 욕구 또는 바라는 사항 -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 - 청소년기관 전체 인력과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자원인력 등의 관계 및 역할 - 상근교사, 기타인력(비상근교사, 전문강사, 자원교사 등)의 근로환경(업무와 역할, 전문성, 노동환경, 상호 관계 등)
학사운영	- 교과과정 운영 * 일반교과와 대안교과 과정운영상의 장점과 보완점 * 특성화된 교과과정이 있는지, 그 내용은? - 통합형 학제운영: 운영방향, 운영방법, 장점, 보완점 등
교육과정	- 주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중점과제, 학습목표 - 탄력적 교육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시간, 내용, 방법 등) - 학생의 취업 및 진학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시설환경	- 대안학교 운영공간, 운영시간, 시설 및 장비 사용 등
지역사회 및 교육지원 체계	- 청소년기관내 대안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특수성 및 욕구 반영 정도 - 대안교육 관련법 제정 - 대안교육지원체계(대안교육종합센터, 지원센터 등)의 역할과 바라는 사항 - 대안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 지역사회자원 활용(도시형 대안학교의 특징) - 제도권 교육(공교육 등)과의 연계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 평가시스템
성과사례	- 청소년 역량개발 및 사회진입(진학, 취업, 사회적 기업 등) 사례
전망	- 청소년기관에서 대안학교의 전망과 과제

다. 대상

대상	모집단	표본	최종조사대상
교사	1,319명(110개 기관)	30명	15명
기관수	110개 기관	30개 기관	15개 기관

※ 위탁교육기관 지정현황 참조(2006년 기준)

※ 청소년 표본은 조사대상 기관 학생 수의 총합임(2006년 기준)

라. 방법

가) 조사과정과 일정

일정	제목	세부내용
5월 말	조사계획서 확정	
6월 첫 주	설문지 개발	담당교사나 대안학교 장 대상
6월 둘 주	설문지 검토	설문지 타당성 검증
	조사협조/기관의뢰	조사공문발송, 기관섭외 및 확정
6월 셋 주	현장방문	25개 기관별 현장방문 및 조사수행
7월 셋 주	자료분석	심층면담 자료 질적분석
7월 넷 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나) 현장방문 대상 청소년기관

지역	위탁 청소년기관(대안학교)	직위
서울 (6)	강북청소년수련관(난나학교)	담당
	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 미디어스쿨)	부장
	송파청소년수련관(한들학교)	담당
	서대문청소년수련관(도시속작은학교)	담당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작업장학교)	담당
	(사)한국청소년재단(아름다운학교)	대표
부산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거침없는우다다학교)	대표
광주	홍사단 광주지부(나잘난학교)	대표
강원	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담당
대전	소년원(대산학교)	대표

경기	용인청소년쉼터(푸른꿈대안학교)	대표
전북 (2)	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	담당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전주대안학교)	팀장
전남	목포시유달청소년쉼터(청소년좋은세상)	대표
대구	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담당

※ 현장방문 고려사항

- ㉠ 현장방문 전 기관에 협조하여 설문지 우편 발송 및 면접 기록지 발송
- ㉡ 사전 조사협조 및 기관섭외: 공문발송
- ㉢ 사전조사 수행: 본 현장방문 전 사전조사 수행
 - 예상기관: 용인청소년쉼터 운영의 푸른꿈대안학교
- ㉣ 기관의 조사협조를 위해서 보상(선물, 상품권) 지급 고려

(6) 전문가 의견 조사

- ① 제목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② 내용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발전방향과 청소년 역량강화 대책
- ③ 대상 : 전문가 자문진(안)
- ④ 방법 : 전문가 포럼 및 자문회의

(7) 면접 평가

본 연구는 청소년기관에 있는 대안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의 면접을 통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현황, 성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대안학교 담당자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대상은 총 18개의 기관 중 대안학교를 하지 않는 기관 3곳을 제외하고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기간은 2009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예정된 일정에 종료되었다. 면접내용은 앞서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

쳐 작성된 대안학교의 현황, 성과, 발전방안 등이 주로 구성되었다. 면접방법은 청소년기관 관련경력이 있는 2명의 숙련된 면접자가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을 위해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였으며 면접시간은 평균 1.5~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은 1:1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의 기록을 위해서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와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면접진행을 위해서 상품을 마련하였으며 면접종료 시 배포하였다. 면접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면접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취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접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대안학교 담당자들이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전, 진행 중, 종료의 전 과정에서 대안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연락과 접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안학교 담당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면접에 응하였으며 사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도 응해줄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비록 면접의 적절성의 판단이 모호하지만 본 조사는 아래와 같은 한계와 후속 조사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먼저 면접대상의 측면에서 본 연구가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예, 광진구 아름다운학교). 다만 이 경우에는 올해부터 청소년시설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을 출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 포함시켜서 대안학교의 발전방안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년원(정보통신학교) 등에서는 연구면접내용이 많지 않고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 대안학교의 방향성 부합 미흡 등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의 측면에서 많은 분량과 일부 내용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이 나타났다. 또한 대안학교 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서 좀 더 대안학교 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일부 대안학교 담당자들에게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면접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접 전부터 사전조사와 현장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장방문을 통한 1:1 면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면접자의 능력,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관계형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상으로 장점은 1명이 아닌 2명이 면접을 함으로써 서로 비교 평가하여 면접결과가 적절하였는지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2명의 면접자간의 성향, 의식, 수준, 정도 등의 차이로 인해서 면접결과의 일관성, 타당성 등에서 한계가 노정될 수 있다. 차후 필요할 경우 면접기관에 사후보충 질문을 통하거나 연구자간의 의견교환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조사결과

(1) 면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시설의 대안학교 담당자이다. 먼저 지역은 서울 경기권 7개, 부산 등 지방권이 8개로 총 15개 기관의 대안학교 담당교사를 면접하였다. 면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에서 남성은 10명, 여성은 5명이다. 연령은 29세-60세까지이다. 종교는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무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모두 대졸이상으로 석사 6명, 박사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직위는 담당은 8명, 부장 1명, 팀장 1명, 대표 5명이었다. 직장경력은 2년-23년이며 대안학교 경력은 1년-13년까지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은 주로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면접결과 내용분석²⁾

① 난나학교(강북청소년수련관)

가. 기관현황³⁾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2002년

2) 면접결과 내용분석은 보고서의 목적에 맞추어 주로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대안학교의 발전전망을 다루었다.

3) 강북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2009년 7월 1일 검색. 서울특별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2008). <2008 난나학교 운영보고서>. 서울특별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 법인현황: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 대안학교 유형 : 도시형 위탁형 대안학교 · 위탁현황 : 도시형 대안학교,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와 연계된 서울시 교육청 지정 학력 인정 위탁 대안학교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교장, 교감, 길잡이 교사(3명), 자원활동가, 강사, 청소년 멘토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위탁교육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 제출 후 상담 및 입학. 1차- 6차까지 면접, 적응기간, 학업계획서, 입학여부 결정. · 교육비 : 없음(급식비, 체험활동비 본인부담). · 정원학생수 : 20명 내외(현재 14명), 졸업생 7명(2008년 기준) · 학년 : 1년 2학기제 · 졸업생 진로 현황 : 중학교과정에서 공교육 진학 7명 · 대안학교 운영공간, 운영시간, 장비 등: 청소년수련관 시설환경 활용
재정	· 서울시 교육청 지원, 수련관 지원, 공모사업(구청,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구성
인력(교사)	· 청소년기관 전체 인력: 수련관 정규 인력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교감, 교장, 길잡이 교사(총 3명), 강사, 자원인력 등 · 교사선발과정 : 교과교사 모집 내용 - 공개모집, 대안교과과정에 필요한 강사모집(서류: 이력서, 수업계획서, 교원자격증 등)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일반교과, 인성교육, 진로교육, 특성화교육 등 · 프로젝트 중심 교과과정 운영 · 교육과정 특성 : 돌봄의 교육과정, 공동체 활동 및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력 기르기, 자기 길 찾기 과정 · 전체교육과정: 입학 - 준비(2주) - 성장 - 자기 길 찾기 · 교과편성 : 보통교과, 대안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자치회의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현재 대안학교의 인력은 올해부터 변경되어 길잡이 교사 3명, 자원활동가 1명, 강사는 교과운영 수대로 상당히 많고 멘토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점은 먼저, 대안학교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직률이 높고 하는 일은 많은 급여가 적은 불안정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다. 때문에 대안학교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대안학교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기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비록 시간이 많이 없지만 되도록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한 교육을 교육청에서 실시할 때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교육청 소속 교원이어야만 대상이 되며 대안학교 교사에게는 기회가 없다. 대안학교 교사도 필요한 교육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curriculum

난나학교의 교육과정상의 특징은 입학초기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처음부터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중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하위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길 찾기 여행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2009년에는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위탁형이기 때문에 교과구성은 자유롭기는 한데 다른 교육과정을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교육청에 제시된 규정안에서 교과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원체계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대안학교이므로 시설사용이나 지원체계는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다. 대안학교 운영공간, 장소, 시설장비사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분노조절을 통한 표현방식이 변화하는 학생 경우

대안학교 학생들이 변화한 경우가 있다. 처음에 분노조절이 잘 안되어 요구를 할 때 부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수정해주어서 “댄스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전에는 심하게 말을 했으나” 지도를 통해서 표현방식이 바뀌게 된 경우가 있다.

사례 2 : 무기력한 학생의 생활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대안학교에 와서 무기력해서 매번 잠을 자던 학생이 생활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경우인데, 대안학교 와서도 계속 잠을 자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교과 선생님 모두 이 학생이 문제라고 제시하면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집에서부터 잠을 일찍 자게 하면서 생활조절을 하게 하여 대안학교 생활에서도 활력을 찾게 되었다.

사례 3 : 청소년 역량개발을 한 경우

프로젝트에서 문화 예술적 접근을 하면서 대안학교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문제학생으로 대안학교에 입학했다고 문화예술의 소질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통해서 문화예술 역량을 개발하는 중3 학생이 있었다. 학교에서 위탁하여 온 학생 중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을 발견하고 플룻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연주와 연습을 실시하였다. 부모와 가족들도 몰랐던 것으로 대안학교를 통해 차츰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꾸준히 연습하여 향후 발표회나 졸업연주회를 기획 중에 있다.”(난나학교 길잡이 교사가 강조한 의견)

난나의 경우 대안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역량개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 예술적 접근을 하면서 대안학교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례 4 : 멘토제도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수련관에서 멘토제도를 운영하여 수련관 다른 부서 선생님들과의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수련관 다른 부서 선생님과 대안학교 학생들의 1:1 멘토제도를 운영하여 수련관 다른 부서 선생님이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멘토 제도를 통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행사나 수련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수련관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 대안학교를 알리고 인식 개선하는데 효과를 주고 있다.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과 좋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대안학교 운영의 변경 등이 많아서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난나학교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안학교 운영상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올해에도 인력과 조직이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체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대안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교류와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교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교과에 대한 지원과 강사풀 형성, 그리고 교사간의 연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핵심은 교과과정, 강사풀, 사례연구에 대한 정보공유이다. 대안교육종합센터에서 길잡이 교사 협의회를 통해 이런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직무연수식으로 학생들에 대한 상담기법, 학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다. 특히 사례연구는 대안학교 내에서도 교과 담당 강사와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생에 대한 사례회의를 진행하면서 학생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게 되고 학생의 관심이나 흥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서 길잡이 교사와 강사의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의 전체적인 문제가 잘 드러나는 효과도 있다.

셋째, 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연수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대안학교 종합센터서 진행하는 교육연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육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학교 교사들이 방학 중에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것처럼 대안학교 교사들만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탁형 대안학교 교사들이 일반교사의 교사직무연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4)

난나학교는 주로 중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진학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에 방향을 맞추어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난나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이어서 위탁형의 목표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위탁형의 목표인 학교 복귀라는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위탁형 대안학교에 온 학생들의 제 갈 길을 찾아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학교복귀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런 학교복귀에서 고민되는 점은 중학생으로서 대안학교에 와서 잘 적응하기는 할지라도 가장 큰 부담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 학업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나학교에서는 일반학교를 떠나 위탁형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에 있어서도 학생들 성향에 맞추어 학습방법을 찾고 기초부터 관리할 수 있는 학습클리닉 도입을 구상 중이었다. 5)

따라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난나학교와 같은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는 학교라는 틀에 대한 대안적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학교에 대한 흥미 찾기, 학교를 즐겁게 다니도록 도와주기 등), 부진한 기초학업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역량 및 소질 개발 등을

4) 여기부터는 앞선 면접내용분석결과와 기존 대안학교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하 동일.

5)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2008). <2008학년도 난나학교 운영보고서>.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p.140.

주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학교(구 광진도시속작은학교)

가. 기관현황 6)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4년 10월에 설립 · 법인현황 : 사단법인 설립 과정 중 · 대안학교 유형 : 비기숙형 도시형 대안학교 · 위탁현황 :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지원 · 조직구성과 업무 : 교장, 교감, 길잡이 교사 · 교육비 : 최대 20만원, 학비 차등 적용제 운영 · 정원 학생 수 : 15명 학생(2009년 2월 기준) · 학년 : 중등학교 과정, 2년(4학기) 기간 안에 수행 · 대안학교 운영공간, 운영시간, 장비 등 - 법인 설립 과정에서 독자적 시설 운영, 일반 주택을 개조 및 보수하여 활용 · 대안학교 정문에 생활 및 음료 카페를 운영
재정	· 독립법인 운영 : 수업료, 후원금, 기금사업 등으로 운영
인력(교사)	· 대안학교 인력 : 30명의 교사(4명 상근교사, 강사, 멘토, 자원교사 등) · 교사선발과정 : 교과교사 모집 내용 - 공개모집, 대안교과과정에 필요한 강사모집(서류: 이력서, 수업계획서, 교원자격증 등)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공통 프로젝트인 연중 프로젝트(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 프로젝트를 수행)와 선택프로젝트(DIY, 예체능, 교양과정), 개별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로 구성 · 교육과정 특성 :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와 합의하여 개별 교육과정과 학습경로를 선택 · 전체교육과정 : 공동프로젝트(필수), 기본 프로젝트(필수), 개인 프로젝트(필수), 졸업프로젝트(필수), 독서(필수), 기초학습 교과(선택), 출석률.

6) 아름다운학교 내부자료. 2009년 7월 기준.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현재는 15명 학생 정원에 총 70명의 교사(상근교사 4명, 멘토 및 자원교사 포함 등)가 활동하고 있다. 대안학교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경험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대안학교 교사의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현장경험을 한 후에 별도의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대안학교 교사에 대한 관련 교육이나 연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curriculum

현 교육과정은 주로 중등 과정이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포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로 1:1 수업이나 2:1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월,수,금은 기본 수업이 진행되며 화, 목은 프로젝트 참여하거나 기관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기본 수업에서는 오전에는 여행에 필요한 영어회화, 오후에는 선택과목을 학습한다. 기초학습과목인 국, 영, 수는 극소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이후 고입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이 2명이 있다. 교과목이나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학습능력부진, 지능이 떨어지는 상태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운영이 한계가 있다.

▶ 지원체계

대안학교 지원체계는 법인 독립을 하는 과정이므로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대안교육연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연간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 외에 광진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도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인력풀에 대한 지원, 성교육 강사 연계, 공부방 연합회와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지역인사가 대안학교 법인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다양한 자원 활용에 도움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개발과 진로 찾기에 효과적인 경우

아름다운 학교에서는 주로 프로젝트형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밥은 하늘입니다.”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교육이 아닌 수준과 욕구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므로 성취도가 높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미래에 진로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글쓰기, 영상수업, 잡지팀, 영상팀으로 구분하여 그 주제에 맞는 취재, 기사, 편집, 잡지 만들기를 하고 영상팀은 카메라를 들고 다큐 제작, 해외여행(네팔)등에 참여한다. 참여도도 높고 호응도 좋지만 진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서 과정 중에 있으며 결과나 성과가 도출되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사례 2 : 지역사회 중심형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개발과 대안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아름다운 학교는 광진구내에서 관련 인사가 결합하여 운영되는 지역형 독립법인체로 진행중이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지역의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력지원, 강사지원, 사업공유 등 다양한 자원개발과 활용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크지 않고 작지만 알찬 대안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개발하려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안학교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광진구에 있는 아름다운 학교는 작지만 내실있는 지역중심형 소규모 도시형 대안학교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규모 도시형 작은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향후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공교육, 중고등학교 학제에서 대학교육 까지 교

육제도 전반의 변화를 통해서 대안학교의 질적 변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는 걸음마단계라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공교육 자체가 붕괴되면서 학부모의 욕구는 커지고 학생들의 문제는 많아지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욕구도 확대되고 있다. 대안교육의 양적확대가 되면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주어 대안학교의 특성과 내용을 살리는 운영 방향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대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대안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도 의미가 있다.”(대안학교 전망에 대한 교사의 의견)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먼저, 지역 기반형 소규모 도시형 대안학교의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운영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대안학교의 위상과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운영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독립방안으로 후원금과 기금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내는 학습비, 후원금, 기금사업 등 이외에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기관에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운영방향은 청소년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에서 효과적이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주고 자율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운동의 접근에서 대안학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탈학교 학생들의 부모들도 다른 학부모들처럼 교육세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금을 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

세 환급운동, 대안교육운동 등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안교육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국가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복지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감면제도와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대안교육도 또 하나의 교육과정이라는 인식하에 대안학교의 교육에 대한 개발과 인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과 함께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안학교 교사의 법적 지위, 근무조건 향상, 교육 및 연수 등의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

③ 서대문 도시 속 작은학교(서대문청소년수련관)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0년(열음, 민간단체에서 최초 설립된 도시형 대안학교) · 법인현황 : 한국청소년재단,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대안학교 유형 : 도시형 대안학교 · 위탁현황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열음” - 정원 : 20명 - 지원행정기관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학력인정여부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 교과운영 : 도시속 작은학교 교육원리, 자율진행 2)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접점인 위탁형 대안학교 “이음” - 정원 : 20명 - 지원행정기관 : 서울시 교육청 - 학력인정여부 : 본교에서의 과정 이후 후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여 학력인정 - 교과운영 :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수단위를 도시속작은학교의 교육원리와 접목하여 진행 · 청소년기관 조직 구성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교육팀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 청소년 교육팀 내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

7) 서대문 도시 속 작은 학교 홈페이지(www.bigschool.or.kr) 2009년 7월 검색.

	· 위탁형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규정 준수 · 대안학교 운영공간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 3층 도시속작은학교 운영 · 운영장비 및 시설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 시설 활용
재정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재정이 함께 운영됨.
인력(교사)	· 청소년기관 전체 인력 : 약 20여명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4명 · 대안학교 강사, 자원인력 : 수련관 직원 등
교육과정	· 교육목표: 4대 교육원리 - 동 : 작은학교는 움직임을 통하여 아이들을 내적치유한다 - 심 : 작은학교는 마음을 열고 타인과의 마음을 쌓기 위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감 : 동과 심의 회복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학업과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성 : 동, 심, 감, 과정을 통해 도전하고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방향 - 자기 관심사에 초점을 둔 맞춤형 인턴십 교육 -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학습망을 동원한 사회적 적응력 향상 - 만남과 배움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 및 자아실현 - 정보화, 다원화, 평생교육의 시대에 맞춘 대안적 학습모델링 - 대안교육의 성공적 사례와 성과들을 통한 사회적 담론 조성 · 교과과정(“열음”학교) - 기초학습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 지역사회 학습 : 봉사나눔, 안산내셔널트러스트 - 작업장 학습 : 요리, 영상, 대자인, 체과, 도자기, 목공 - 공연예술학습 : 난타, 아카펠라, 밴드, 1인 1기 - 기업학습 : 경제교실, 이미지메이킹, 대인관계 - 체험학습 : 도보여행, 산행, 문화체험, 가족캠프, 자서전 · 특성화 교육(“열음”학교) : 인턴십 프로젝트, 체험학습, 시민학습, 나눔학습, 문화학습, 맞춤형 학습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교사의 연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 상담, 특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영상제작과 같은)등에 대한 교육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 curriculum

서대문 도시속작은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위탁형과 비인가형을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사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수업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형태는 다른 학교에서는 없는 모델이다.

▶ 지원체계

교사 네트워크가 있으며 다른 학교와 공동연구, 체육대회를 함께 하고 있다. 인근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미술치료 등을 연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교 교사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다. 일반학교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르고 힘들고 부적응적인 학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대안학교에 전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만 일부 선생님의 경우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J 여고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안학교와 학생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학교에서 캠프가 있을 때 자신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학생이 캠프에 참가하도록 도와주었다.”(길잡이 교사 의견).

㉞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대안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경우

서대문 도시속작은학교에서 봉사활동은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이다. 매학기 매 수업에 있으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대안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도 봉사활동에 대안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실제로 봉사활동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

“대안학교 학생이 은평천사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봉사활동 점수로 대학에 입학하였다.”(길잡이 교사 의견).

처음에서는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수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다. 점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봉사활동과의 다른 점은 일반 학교에서 가는 봉사활동은 일회성이 많은데 대안학교에서는 지속성, 정기성, 장기성 등의 특성을 가진 봉사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기관도 변하지 않고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학생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례 2 : 대안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

처음 출발하는 대안학교에서 서대문 도시속작은학교로 많이 배우러 견학을 온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초기에 부정적 인식에서 점차 지역사회 참여와 접근으로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안학교가 수련관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수련관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길잡이 교사 의견).

사례 3 : 인턴십을 통한 학생의 진학 성공

서대문 도시속작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진학을 한 학생이 있다.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 보조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향후 명지전문대 사회체육과에 진학한 경우이다.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대안학교에 대한 아래와 같은 고민을 통해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다.

“처음에 대안학교 활동에 참여한 것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학력인정이 되지만 단점은 또 다른 부적응 학생을 생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학생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게 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배제되는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안학교가 또 다른 도피처가 된다. 인턴십이나 진로체험을 통해서 특성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다. 특성화 과정과 규정과목을 함께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의견).

위의 글에서 보듯이 대안학교는 앞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 또 다른 부적응 학생들의 양산의 측면보다는 대안학교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성 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안학교의 발전전망은 밝다. 공교육보다 대안교육에서 학생들의 가능성이 더 크다. 소규모 그룹이며 학생대비 교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취업, 진학이 늦더라도 20대 중 후반이면 자기주도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서대문 도시속작은학교의 대안학교 탐방을 통해서 길잡이 교사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소규모 도시형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야 하고 내실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안학교의 가장 좋은 모델은 기존의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소규모 도

시 속 대안학교들의 좋은 모습이다.

셋째, 대안학교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매뉴얼(교과과정, intake, 인턴십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자체적으로도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책연구원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지침의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발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대안학교 교사의 “교수법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선책은 공교육 흡수를 통해 위탁학교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위탁학교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각 대안학교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④ 하자작업장학교

가. 기관현황⁸⁾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2001 · 법인현황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대안학교 유형 :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 · 하자센터에서 하자작업장학교가 독립하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직영으로 운영됨 · 기존에 하자직업체험센터 소속에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소속으로 운영 변경 · 재학생 52명(60명 정원) · 하자직업체험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함 · 공간 : 시작방, 디자인방, 영상관, 골방, 마루 등
재정	·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지원, 수업료(학기별)는 사업비로 사용(한 학기당 77만원, 급식 포함 100만원)
인력(교사)	· 6명의 대안학교 교사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신입생 : 길찾기 과정(4개월)

8) 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9. 2009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 학교 안내서. 참조.

	- 죽돌 : 주니어 과정, 시니어 과정 · 교과과정 : 수업이라는 말은 없고 모두 프로젝트로 전환하였음. · 특성화 교육 : 진학을 위한 특별한 과정은 없으며 청소년들이 알아서 스터디를 한다. 과정은 주니어, 시니어가 있으며 주니어 과정을 거쳐 시니어 과정으로 들어간다. · “위탁하기” : 하자작업장학교에서 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과정에 위탁해서 교육 운영
--	---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하자 작업장 학교의 길잡이 교사는 오랫동안 작업과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강화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안식년” 제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 curriculum

현 교육과정은 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수업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프로젝트라는 말로 전환하였다. 하자 작업장 학교의 모든 수업은 프로젝트로 대체된 형태이다. 취업도 원할 경우 아이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2009년 봄 학기 같은 경우는 주니어 과정과 길찾기 과정이 있다. 주니어 과정은 소위 “죽돌이” 라고 해서 하자작업장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다닌 청소년이다.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길 찾기 과정 약 4개월 정도 되며 학습 과정을 마친 아이들이 학습 계획서를 쓰고 나서 인터뷰 과정을 거쳐 주니어 과정이다.

▶ 지원체계

하자 직업체험 센터에서 올해부터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직영체제로 변화되어 시설과 공간은 하자직업체험센터를 이용하며 운영체제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하자 작업장 프로젝트를 통한 취업과 진로 개발

하자 작업장 학교에서 초창기 1, 2회 졸업생들은 현재 모두 영상 분야에
서 일하거나 유학중이며 2회 졸업생 중에서도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
다. 또한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청소년도 있으며 하자센터에서 청소
년기를 거쳐 현재 하자작업장학교 ‘판돌’(대안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2 : 대안학교 학생 위탁하기

하자작업장학교는 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자작업장학교의 길 찾기 / 주니어 과정에 한 학기 이상의 학습을
위탁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안학교에서 학습중인 청소년들이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자신의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작업장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열어두어 대안학교간의 새로운 학습교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학교장의 승인 하에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멘토교사와 하자작업장
학교의 멘토들이 함께 위탁학생의 학습설계를 조언하며 위탁학기에 대한 성
과 및 결과는 소속 학교의 학적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현재 하자는 하자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독립하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로 이전하였으며 다만 시설은 하자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
로는 하자가 만들어낸 하자만의 문화에 대한 외부적 기대가 있지만 내부적
으로는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전에는 탈학교 청소년들
이 갈 곳이 없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다양한 학교 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학교 중에서도 욕구와 기대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하자센터라는 곳의 하자작업장학교에 대한 기대가 이전에는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 등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어 철학과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자센터라는 곳의 하자작업장학교의 기대는 늘 비슷하게 요구되어 지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학부모들의 기대는 좀 더 다른 교육 환경 안에서 좀 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체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입니다. 하자 작업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기대들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어떠한 시선들도 마찬가지로 하자작업장 학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점점을 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 거죠.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에 의해서 약간 좀 더 강하게 이슈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변에서 그런 기대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들 이 분명히 변했고요, 찾아오는 학부모들도 분명히 변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탈학교 학생에 대한 시선이나 인식 자체가 변했잖아요. 그런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학교들 안에 있는 철학은 변하기 힘들지만 철학을 뒷받침하는 프로세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길잡이 교사 의견).

하자작업장학교의 대안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생, 학부모,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 인증제”는 대안학교 발전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금 현재 대안교육 한해서도 인증제라는…. 쉽게 이 공간이 교육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어야 한다. 교육청에서 나가라 라고 말을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비인가 이기도 하지만 교육까지 하

게 되면 “너희들 뭐하는 단체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단어나 학교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는 학교를 대신하는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인증제를 받으려고 대안교육 법제와 관련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중의 복잡함을 겪게 되는 거죠. 학력인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은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길잡이 교사 의견).

하자작업장 학교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주로 대안학교의 모델, 역할, 제도화 등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주요 의견을 토대로 하자작업장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하자 센터가 청소년들의 직업 및 진로체험의 역할모델로서 문화적 아이콘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하자의 노력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아직도 그것은 실험적이며 향후 하자의 고민으로 남아 있다. 하자의 실험이 다른 지역과 기관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벤치마킹이 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위험한 복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의 모델과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자가 직업 교육적 모델로서 청소년의 창업과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안학교로서 청소년들이 더 넓고 거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이기에는 하지만 또 하나의 온실(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는)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하자작업장학교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비인가형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기존에 다른 대안학교와 차별성은 하자작업장학교가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자작업장학교에서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었다. 하자작업장학교의 담당교사와의 면접을 통해서 제시된 이런 고민과 성과를 중심으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철학과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과 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학생, 학부모들의 기대와 욕구의 변화는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변화하는 욕구에 대해서 하자작업장학교의 철학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변화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대안학교의 전과정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자의 경우 대안학교에 입학, 교육과정, 졸업 의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길찾기, 주니어, 시니어 등의 과정이 그것이다. 즉 하자는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거보다는 그 과정자체 속에서 청소년의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특히 하자작업장학교의 경우 졸업생이 하자작업장학교의 담당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적으로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학교 인증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것은 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에 밀접한 토대를 구축해준다. 대안학교 인증제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제시되었다.

⑤ 송파한들학교

가. 기관현황⁹⁾

9) 송파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youth1318.or.kr) 참조. 2009년 7월 검색. 송파청소년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2004년 · 법인현황 : 재단)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잠실교회 · 대안학교 유형 : 도시형 대안학교, 수익형, 비인가, 비학력인정, 14-19세, 선발면접, 인성검사를 받아서 선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안하고 가해학생은 약속을 받고 입학할 시킴. · 청소년수련관 내 특화사업팀 프로그램인 대안학교 운영, 대안학교 교사는 특화사업팀 직원임. · 학생은 14-19세 입학 ·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 선발 · 입학과정 : 입학상담- 1차서류전형(부모자기소개서)-2차면접-예비 학교-최종입학결정 · 등록금 : 학기 35만원 · 대안학교 운영공간 및 장비, 시설 : 청소년 수련관 공간, 시설, 장비 이용
재정	· 재정구조 : 서울시지원+학생교육비+외부지원금
인력(교사)	· 인력 : 기관장, 부장, 교사, 강사, 자원교사로 구성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2명 길잡이 교사
교육과정	· 교육목표 : 대안학교를 통해서 상급학교 진학 또는 직업과의 연계 · 교과과정 : 필수교과-기본교과-체험교과로 구성, 2년 4학기제(중고 등통합과정) · 교과내용 : 수업교과 - 필수교과(국영수 중고등과정/1인1기), 기본교과(프로젝트, 도시농업, 스포츠), 체험교과(드럼, 체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국악 등), 기타활동 - 개별학습, 검정고시 특강,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등 · 특성화 교육 : 방과 후 검정고시 특강 및 개별학습, 창업 프로젝트, 인턴십 등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현재는 길잡이 교사 2명, 자원교사 10명, 학생 10명, 강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근로조건이 수련관 직원체제로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안학교에서 필요한 적정인력은 담당 2명, 행정 1명, 자원교사, 강사 풀, 학생은 15명 정도이면 적당하다. 특히 대안교육센터를 통한 강사풀 확보

년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홍보지(2009년 여름학기 6-8월).

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대안학교의 기초과목(국, 영, 수)에 대한 강사풀을 통해서 지원이 요구된다. 이 강사는 단순히 학원 강사 차원이 아니라 대안학교의 미션과 어울리는 강사이어야 하며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체적인 교육과 외부교육을 적절히 병행하여 원론적인 내용이외에 실무적인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사이에 공동의 관심사를 이끌어 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curriculum

현재 기초과목과 특수과목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목표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기초과목과 특수과목의 비율은 5:5이며 방과 후에 원할 경우 기초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방과 후 교육에는 학생들의 욕구가 있으며, 흥미, 동기부여, 학습에 대한 목표, 참여도, 수업분위기 등이 점점 변화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학습 참여도가 높아졌다.

여름방학 때 탈학교 학생들의 발생빈도가 많아서 전화 상담과 미팅 후 부모와 상담하여 학생들을 받고 있으며 주로 피해학생위주로 상담하고 검정고시를 봐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지원체계

대안학교에서 공교육에 비해 공간의 제약과 열악한 시설이 사실이며 보다 독립적 공간과 안정적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서 인건비, 구청 인건비, 입학학생 수업비, 기금사업, 수련관 시설과 장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내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안학교에도 필요하다. 프로그램 및 강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정서적 안정을 통한 대안학교 적응과 소질 개발

한들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 때문에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 장점, 변화해가는 모습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는데 성인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조그마한 성장의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들학교에서는 학생의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증이 심한 아이가 있었는데, 학부모가 아예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는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 학교에서는 잘 지내는데 집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었다. 대안학교 수업에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표현되었고 부모가 인정해주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막연히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현재는 제대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며 부모들도 학생의 노력에 대해서 점점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길잡이 교사 의견).

사례 2 : 프로젝트 수업에서 참여와 동기부여 강화

한들학교에 수업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 오는 학생들은 집에 있기 답답하니 그냥 오는데 점차 학습에 대한 욕구가 표현되고 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기초과목이 진행되고 프로젝트 형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재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들학교에서는 “자전거 여행”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전거 여행 프로젝트 수업은 한들학교에서 몇 년간 진행되면서 특성화된 수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전거 완주는 제주도 지역을 자전거를 통해서 완주하는 프로젝트 형 수업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다양한 교육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자전거 하이킹, 봉사활동, 환경 운동 등이 그 사례이다. 주요 수업 동기는 환경, 나를 찾기, 자연친화성 등이다. 4·5년 동안 진행되면서 한들

학교에서 자전거 프로젝트가 특성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자전거로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환경활동을 연계하는 통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길잡이 교사 의견).

사례 3 : 진학과 학교복귀 사례

한들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기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주요 성과이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과 복귀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한 학생은 검정고서를 통과해서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 간 친구는 2-3명이다. 외부적으로 이런 성과는 작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성과이다. 또한 이전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었는데 대안학교에 와서 친구가 생기고 대화하게 되고 배려할 줄 알게 되는 학생도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들도 학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길잡이 교사 의견).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대안학교 한들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가 거점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종착지보다는 정거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청소년시설에서 대안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각 기관의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수련관 자체가 대안학교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자에 맞는 학교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대안학교 한들은 주로 학생들의 진학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와의 의견을 중심으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에서 기초학습이 중요하다. 기초학습은 대안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특히 통합수업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대안학교의 개교를 통해 다양한 욕구와 목표를 가진 청소년들의 거점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으로 교육세 투자를 통한 학생들에 지원 강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강사풀에 대한 제도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인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⑥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가. 기관현황¹⁰⁾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2 · 법인현황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대안학교 유형 : 미인가 도시형 대안학교 · 청소년기관 조직 구성 : 청소년특화시설 내 교육팀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청소년미디어센터 내 대안학교 팀 담당 구성 · 현재 학생은 15명이다. · 대상 : 16-18세 탈학교 청소년 · 학생자치문화 형성 : 학생 발언권 프로그램 참여 · 학생정원은 20명 · 수업료 : 40만원 · 선발 : 1차(인성검사)-2차(서류전형)-3차(예비학교)-4차(적응프로젝트 수행)-5차까지(프로젝트 발표) 선발 ·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시설, 장비, 공간 활용

10)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sro.net) 참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2009.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안내자료집>.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재정	· 수업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지원, 공모사업 등
인력(교사)	· 청소년기관 전체 인력 : 약 20여명 · 청소년시설 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4명(2009년 7월 7일 홈페이지 검색기준) · 대안학교 강사, 자원인력: 약 35명 내외 · 대안학교 자원교사 활동영역 : 기초교과학습지도, 소모임 운영, 정규수업 진행 및 보조, 멘토링, 길잡이 교사 지원 등
교육과정	· 교육목표 :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 자신의 적성 개발을 통한 진로탐색, 미디어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사회기여 - 모토 :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니다.” · 교육내용 : 나의 삶을 돌보고 새롭게 배움의 끈을 이어가며 그 과정 속에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 교과과정 : 프로젝트 운영과 하위 프로젝트 진행, 일반과정 1년, 전문화 과정 1년(총 2년 4학기제) · 특성화 교육 : 프로젝트 별 수업, 미디어 관련 교육가정의 특성화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현재는 학생 20명 정원에 2명의 전담인력이 있다. 작은 학교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 개발, 준비, 아이들 상담, 교육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소규모로 운영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안학교에 적절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의 근무조건이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다(비정규직). 대안교육센터의 지원 때문에 수련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에서 확실히 대안학교의 인력조건으로 정규로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교사의 경우에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필요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안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부족하다. 대안학교는 방학을 하는데도 교사는 방학이 없는 상황이 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여름방학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curriculum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은 미디어 특화시설이다 보니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이 특성화되어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업에서 학교에 대한 흥미와 수업에 대한 흥미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기 전문분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안학교가 미인가 이다보니 학력 불인정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검정고시 준비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미디어스쿨의 한계는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고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가 대안학교 활동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미디어의 단점은 진지한 고민들, 철학,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 인문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능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의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인문학적인 부분은 관심도는 떨어지고 미디어의 기능적인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깊은 고민에 대한 것이 부족할 수도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우 미디어의 멋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취하려고 하고 그 속의 진지한 생각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쉽게 결론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은 생각이 미디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의견).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의 경우 동기부여가 부족하며 출석만 하면 졸업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머리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위탁형의 경우 거의 학교처럼 운영하여야 하는데 교사풀, 강사풀, 인프라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 지원체계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은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공간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의 특성상 환경과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수련관의 경우는 상황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익사업을 중요시하고, 이로인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 다만 청소년기관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다. 오전 시간에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가 있는 동안 학업 중단 청소년이 그 시간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열악한 대안학교와 다르게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면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다. 수련관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공모사업도 기업 사회공헌과의 연계는 가능하나 대안학교가 규모가 작고 다른 이슈에서 밀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지원체제로 서울시 대안교육 센터 소속인 18개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다만 대안학교 대표교사들의 모임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네트워크 이외에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을 통해 생성된 졸업생 선배 네트워크로 다양한 대안학교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서 대안학교 학생의 자기계발과 취업진로 지원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생과 가족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개입으로 대안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의사소통을 해보야 했는데 관계형성이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 자전거 일주 500km 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검정고시 합격, 자기 친구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모범 청소년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탄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계원조형예술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CF 회사에 입사해 다니고 있습니다”(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의견).

사례 2 : 졸업생 선배 네트워크를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역할모델 정립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의 경우 졸업생 선배들의 네트워크가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 졸업생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대안학교 후배들에게 지도해주고 역할모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안학교 졸업생이 자원교사, 수업보조교사, 검정고시 수업 보조교사 등으로 대안학교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대안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길잡이 교사나 담임교사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서는 대안학교 졸업생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대안학교 졸업생 모임에 대해 제도화하여 예비교사 네트워크 구성도 제안되었다. 그리고 신입생 예비학교에서 졸업생이 참가하여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다.

사례 3 :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참여 후 창업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 참여한 학생 중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 창업한 사례가 있다. 2004년 대안학교에서 학생이 참가하여 영상미디어로 홍보영상을 만들어 돈을 벌어서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영상 업체를 만들어 창업사례 도 있다. 그 외에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회사처럼 해서 회사를 키워서 사회적 기업형태로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고 회사를 키워서 큰돈을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후배들을 키워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은 2000년 초반에 시작되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험기 - 세련기 - 확장기를 거치면서 앞으로는 수련관 안에서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이 수련관 내부에서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안학교의 규모를 확장하려는 전망을 고민하고 있다. 재단이나 센터 내부에서 시설전반에 대해 대안학교가 운영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대안학교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였으며(재정, 인력, 시설, 공간 부족),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교육청이나 교육부, 다른 기금사업 등(기존에는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사업이 적었는데 예전보다는 확대되었다)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 사회적 인식, 인프라의 확대,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을 통해 본 대안학교의 발전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세심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상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지난 4-5년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이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대안학교에 대한 양성화에서 난립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즉, “저 학교가 대안학교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스스로넷미디어스쿨의 대안학교 활동을 탐방하고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와의 면접을 통해서 나타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를 청소년의 권리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인식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의견을 볼 때 이런

대안학교 청소년의 권리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의 권리이다. 교육세에 대한 혜택은 이 청소년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중단하는 순간 이 청소년들은 모든 권리와 혜택이 중지되는 것이 문제이다. 향후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울 권리를 국가나 법, 제도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관련법이나 제도에서 학교중단 학생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의견).

둘째,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 하찮게 보지 말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과 거기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학업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고, 대안학교를 소개 해주어 연결해 준다면 좋을 텐데 별 정보제공이 없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기관 자체적인 홍보 특히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대안학교 길잡이 교사의 의견).

셋째, 교육부, 교육청, 서울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먼저 교육부는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내는 교육세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존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교부금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수련관 안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이런 훌륭한 공간을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인

식되었다. 다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불안정한 상황(비정규직 상태)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다. 위탁형 대안학교 서울시 교육청, 탈학교 청소년은 서울시 서로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위탁형과 탈학교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불안정한 구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대안교육종합센터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관계에서도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이 보기에는 학교 학생이 아니므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대안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 좋은 강사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⑦ 경기 용인 푸른꿈 대안학교

가. 기관현황¹¹⁾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5년 · 법인현황: (사) 푸른꿈청소년상담원 · 대안학교 유형 : 비인가형 위탁형 대안학교 · 청소년쉼터, 상담원, 대안학교를 함께 운영 · 쉼터 청소년(90%)과 위탁형 청소년(10%)로 구성 · 위탁의 경우 5일 동안 하는데 2주정도 진행한다. · 대안학교는 법인 건물에서 사용주이며 법인 건물 1층을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	· 수업비 없고, 법인재정, 기금사업(교육청 지원) 운영
인력(교사)	· 대안학교 전담교사 2명, 미술치료 자원교사 3명, 독서지도 4명, 사진가 3명, 풍선아트 3명, 바리스타 전문가 1명 등 모두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활동 중임.
교육과정	· 교육목표: 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적응 향상 · 교육내용 ① 위탁교육 : 학교부적응 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 1년 과정,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청소년, 27개교 149명 참가, 3,5,10일로 구분 운영, 기본면접과 부모상담 실시

11)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2008. <2008 운영보고서>.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참고

	· 특성화 교육: ① 검정고시 :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자격 취득하여 자립 기회 제공, 3월부터 시작 매주 2회, 고입과정 중심 운영(고입과정 3명 합격 성과) ② ITQ 정보기술자격 교육 :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으로 자립기반 구축, KT 사의 IT 서포터즈와 연계 ITQ 시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기술 교육 등) 과목 진행(ITQ 자격시험 5명 합격)
--	---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현재는 대안학교 전담교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상 각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

▶ curriculum

현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 검정고시 교육, ITQ 정보기술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지원체계

대안학교의 재정은 열악한 상태이다. 기존 교육청 재정에서 위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인식하여 30%라도 대안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정고시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원비 지원,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안학교 지원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진로 모색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제빵 교육과 바리스타(커피전문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재활센터, 여성센터, 용인시민신문과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인 제빵사업체인 내리사랑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우리밀 빵을 제작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인증을 받고

고등학교 8명이 참여하면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다.

둘째 바리스타(커피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이며 청소년 중에 4명이 자격을 획득하여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이 바리스타나 제과 등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는데 작년에 7명이 참여하였고 시험 준비과정에서 재정이나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제빵은 기술연수로 봉급을 주면서 실시하였다.

사례 2 : 대안학교 졸업생과 연계하여 청소년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용인 푸른꿈 대안학교의 경우 대안학교 졸업생과 연계하여 대안학교에 오는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자립을 하고 대학 애니메이션 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생이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대안학교 청소년들과 연계하여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졸업생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번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졸업생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선배들이 격려해주는 활동을 한다.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졸업생 350명에게 전화했는데 그 중에 제자리 잡아서 다 활동을 하고 있고 2명만 문제가 발생하였다.”(대안학교 운영자 의견).

사례 3 : 적극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안학교 청소년 사회적 지지망 연계

용인 지역사회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도교육청, 정신과 의원, 치과, 병원, 한의원, 에너지관리공단(검정고시 교사 자원봉사), 강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와 실습, 다른 지역 교장 선생님(성남, 분당, 광주, 이천, 수원 등지에서 학생들이 위탁), 언론기관(용인시

민신문 등)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및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수지삼성병원에서 의료비, 건강보험료 외에 청구하지 않도록 협약을 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신과 의원과 정신적인 문제 상담을 지원받아서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분노가 쌓여 있는 학생들에게 정신과 상담을 연계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대안학교 운영자 의견).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대안학교 발전 전망에 대해서 대안학교 운영자의 의견을 통해 향후 대안학교의 미래는 학업과 기술교육이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용인 푸른꿈 대안학교의 비전은 돈이 된다면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바리스타(커피전문가), 제빵, 미용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꿈이다. 한쪽에는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대안학교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기술과 학업을 핵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대안학교 운영자 의견)

향후 푸른꿈 대안학교는 청소년 쉼터보다는 대안학교에 중심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도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대안학교는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푸른꿈 대안학교에서는 전문기술과 학업이 중요한 운영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대안학교의 활동내용을 보면서 운영자의 의견을 토대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엇보다도 기초학업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이 고등학

교까지는 필수적으로 마쳐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학교는 인재육성의 차원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대안학교에서는 취업전문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학과 학업을 통해서 인재육성과 영재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과과정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이 요구된다. 또한 대안학교 시설 기준 250명은 사립학교 수준인데 이 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정책차원에서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을 위해서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탈학교 청소년은 확대되는데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⑧ 읍내정보통신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7년 명칭변경 · 법인현황 : 법무부 · 위탁주체 : 소년원 / 위탁을 준 기관 : 법무부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분류보호팀장, 대안교육 담당(2)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관내 학교 위탁 - 심사 - 입학 · 학생 위탁 사유 : 교내 부적응(폭력, 근태 등) · 학생수 : 정해진 규정 없음 · 학급수 : 1학급 · 학년 : 1주일 프로그램 · 대안학교 운영공간 : 소년원 내 대안교육시설 · 운영시간 09시~17시
재정	· 법무부 내 소속기관으로 법무부 예산으로 운영
인력 (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소년원장, 분류보호팀장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대안교육담당자(2) · 교사선발과정 : 소년원 내 인사발령

교육과정	· 교육목표 : 학교 부적응 학생 선도 · 교육내용 : 상담, 약물,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 · 교과과정 : 5회기 · 학사: 5일 과정에 참여하여 4-8시간 하루 교육 수료 · 위탁기간 : 평균 5일(1주일)
------	--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시설적인 면에서 좀 더 교육적 환경의 확대가 있었으면 하며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가 증가되기를 원하고 있다.

▶ curriculum

5일 동안 매일 7교시가 운영이 되고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인성관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지원체계

다른 지방들처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따로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현재 시설적인 면은 완비되어 있어 큰 불편은 없지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대구에 있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장소 같은 형식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공간에서 소년원 내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면에서는 연 2회 대구 시내에서 청소년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며 법무부 소속 대안학교 담당자들이 연 2회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프로그램 공유 및 업무상 어려운 점들에 대해 1박2일 동안 토의하고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비행율만 본다면 재비행율이 확연히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민간부분에서도 대안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법무부내 소년보호교육 기관 내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독립기관이 존재했으면 하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인성교육 위주로 5일간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별도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학생의 진로 및 취업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 복귀가 주요 방향으로 인식되었다.

⑨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0년 · 조직 : 교장(1), 교사(2) · 위탁주체 : 자체운영 · 독립적인 법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공고-서류전형-면접-합격자발표 · 학생 위탁 사유 · 학생수 : 정해진 규정 없음 · 학급수 : 중등, 고등. · 학년 : 나이 보다 준비정도에 따라 중등과 고등으로 나뉨 중등 3년, 고등 2년. · 수업료 : 입학금 10만원, 월회비 1~30만원(보호자 결정) · 대안학교 운영공간 : 부산 금정구 남산동 21-8번지 3층
재정	· 후원금, 학부모 회비, 임원회비, 교육부 지원(미인가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교장(1), 교사(2) 외 자원봉사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교장, 교사 · 강사, 자원인력 : 지역사회 자원 다수 확보 · 교사선발과정 : 공고-면접-수업계획서제출-재논의-수업 배정
교육과정	· 교육목표 : 대안학교를 통한 사회공동체 형성 · 교육내용 : 정규교과와 프로젝트 교과. · 교과과정 : 중등 3년제, 고등 2년제. · 특성화 교육 : 프로젝트 교과(보따리수업, 인턴십교과 등) · 모집: 일 년에 한번 10명 이내 정시모집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교직원 5명에 3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월 1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주차비 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대안학교 운영과 학생지도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사명감과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수당, 근무환경 등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완화 또는 확충이 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curriculum

교육과정은 정규교과와 프로젝트 교과로 나누어지는데 정규교과는 다시 보통교과와 대안교과 두 가지로 나뉜다.

학생들은 대부분(80%정도)이 진학을 원하며 그에 따라 인턴십 활동, 진로 수업이 따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17시 이후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별도로 모임(공부도)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요청을 한다면 상근교사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지도를 한다.

▶ 지원체계

학생 56명과 교사들이 함께 생활해야하는 공간이 90평이므로 이는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는 따로 없는 편이며 단지 우다다 학교 자체를 그냥 가만히 뒀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 공간상의 협소한 문제로 1년에 10명 정도 이내 모집하고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대안학교를 통한 취업과 진학

우다다학교에서는 졸업생 배출이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특성화된 성과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경우가 있다.

“정식으로 졸업생을 배출한지는 2~3년 정도 됐죠. 대학을 한 10명 정도 갔고요. 그 외에 2~3명 취업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에도 한 친구 갔죠. 노리단 인가? 자기 영역들을 많이 찾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대안학교 길잡이 교사 의견)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우다다 대안학교 탐방을 통해서 나타난 대안학교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대안교육이란 작은 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안학교의 특성을 강화시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뉘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낮은 단계의 공부방 단계로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정규 학교든 정규 교육기관 이든 교육청이든 많이 끌어안는 모양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들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가 틈새 자나요. 근데 무시하지도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되는....각 대안학교의 특성을 강화시켜 발전하는 방안으로 조금씩 대안학교들 끼리 나뉘어 형성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대안학교 길잡이 교사 의견).

둘째,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를 통하여 대안학교 자체적인 문제와 교육담당 정부기관과의 행정적인 연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가는 안 해 주더라도 학력은 인정해주는….미인가 학교지만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 일정부분의 과목은 면제해주는….약간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학력인정 부분은 사회적 추세, 세계적 흐름 아닌가하는….예전에는 교육이 의무였었지만 이제는 권리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대안학교 길잡이 교사 의견).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우다다학교의 경우 학생들 대부분이 진학을 원하기는 하지만 인턴십 프로그램과 진로 프로그램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은 졸업생이 배출된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다다 학교와 같은 대안학교에서 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대안학교의 특성을 강화시켜 발전하는 방향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의 권리 차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미인가 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이나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대안학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서 대안학교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⑩ 청소년좋은세상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6년 · 조직 : 교장(1), 교사(2) · 대안학교 유형 - 위탁형 대안학교 · 위탁주체 : 청소년좋은세상 · 위탁을 준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위탁년도 - 2006년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이사장(교장), 길잡이교사 2, 간사 1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학교의뢰 · 학생 위탁 사유 : 관내 학교 부적응 · 대안학교 운영 공간 : 목포시 상동 978-1
재정	· 약 5천만 원(2008년 기준), 교육청에서 약 1400만원 지원(2009년) · 재정구조: 교육청 지원, 학부모 후원금(20만원), 외부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대표이사, 사무국장, 각 팀.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이사장(교장), 길잡이교사 2, 간사 1 · 강사, 자원인력 : 대안학교 길잡이교사 및 쉼터 직원
교육과정	· 교육목표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학업 유지하여 졸업 후 본교에서 졸업장 수여. 아이들의 진로적성 탐색 · 교육내용 : 개인상담, 집단상담, 집단교육 · 교과과정 : 검정고시 준비반, 창업교육 등 · 특성화 교육 : 오전 마음 다스리기 수업, 인성교육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인력적인 면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인력 지원, 교육시설 확충, 기자재 및 장비의 보완 등 예산확충이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주로 거론했다.

▶ 지원체계

기본적으로 쉼터와 대안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지만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안학교 담당 교사의 인식도 쉼터와 대안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쉼터와 대안학교를 이원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선생님들과 사단법인 임원진들의 의견 이였습니다. 분리되어서는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보호, 상담, 교육, 문화 활동을 통해서 5대사업을 목표를 갖고 실시를 했던 거예요. 교육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와 대안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요.”(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훌륭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미약하여 예산에 따른 불만이 있다.

컴퓨터 바로 옆 건물을 사용하면서 도시형이면서도 기숙형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만 기자재나 장비 등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들에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대안학교를 통한 현장학습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현장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아이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 제가 교수로 있는 학교 수업에 참관수업과 현장에 함께 간 사례가 있어요.”(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국가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폐교된 학교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간의 협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관심,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래서 아이들을 감동시켰을 때, 아이들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언급하였다.

청소년쉼터안의 대안학교 운영에 관한 발전에 관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아무리 긴밀하다고 하여도 각자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력구축을 해서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있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문제가 하나뿐이 아닌 여러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로 아이들과 원원관계가 되어서 한 기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500만원이 드는데 컴퓨터와 대안학교가 연계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합쳤을 때 600만원이 든다면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청소년좋은세상 학교는 청소년 컴퓨터와 함께 운영되는 대안학교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에 비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미약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좋은세상 학교를 탐방하고 면접한 결과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와 취업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입학하기 때문에 졸업에 역량을 맞추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컴퓨터와 공동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그 특성을 살려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외에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참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⑪ 나잘난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6년 · 조직 : 원장, 부원장, 팀장, 간사2 · 법인현황 : 대표, 사무처장, 사무국장, 부설기관 사무국장 2, 부장 2, 직원 14명 등 · 위탁주체 : 광주흥사단 부설 청소년연구원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원장, 부원장, 팀장, 간사2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은 비행 또는 위기청소년 · 학생 위탁 사유 : 보호관찰 1~3호 처분 · 학생수 : 정해진 규정 없음 · 학적: 보호관찰대상자로 선정하여 통합대안교육센터로 변경 · 대안학교 운영공간 : 광주 동구 수기동 5-4번지 홍사단 2층
재정	· 기관 전체 연간 재정 규모 : 예산총액(743,205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10%), 기부금 및 모금활동(15%), 정부보조(62%), 사업수익(10%), 기타(3%)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대표,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원장, 부원장, 팀장,
교육과정	· 교육목표 :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가족기능 회복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성장지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존감 및 문화적 잠재력 회복 -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자립능력 획득 -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철저한 개인별 사후관리 · 교육내용 : 자아존중감향상, 가족관계향상, 감정고시 등 · 특성화 교육 : 감정고시, 밴드, 미술활동 등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조직구성은 원장, 부원장, 팀장과 간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제적으로 예산부족과 환경적 공간의 확보 부족,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 외에 일의 특성상 다양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 시각차로 인해 선생님들 간의 의견이 일치점을 찾지 못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 지원체계

내적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팔난학교에서 하는 범죄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은 광주시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센터 등 유사한 기관 여러 곳이 있는데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원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체계를

통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유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가 하는 범죄 청소년만 가지고 본다고 해도 저희 광주시 지역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센터 등 과 유사한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체계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효과를 거두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아이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커버 할 수 있는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그러한 곳을 서로 논의를 통해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더군요. 여러 기관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체계화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대안학교를 통한 진학과 진로개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 사회봉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진학과 진로 적성을 개발하였다.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내적치유가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은 내적치유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아성장 교육을 먼저 한다. 그 외에 사회봉사나 공동체생활 등 함께 어울릴 있도록 하고 있어요.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몇 명 있으며, 의류, 택배업체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다. 또한 본인이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는 아이도 있다.”(대안학교 교사 의견).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대안학교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범죄청소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진로, 방향설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과 지원 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역동적인 아이들이다보니 다른 부분에 있어 예산, 자원, 공간 등을 많이 활용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곳이 지속형으로 되어 있었으면 아이들이 효과 적으로 변할 수 있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예요”(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초기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으며 지금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상담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아이에게 제시도하고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방안은 현재 검정고시반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잘난학교 역시 대안교육에 대한 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과 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검정고시만 준비해 주는 실정이다.

나잘난학교와의 면접결과를 고려해볼 때,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독립된 공간 확보, 다양한 정보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⑫ 송천정보통신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7년 명칭변경 · 법인현황 : 법무부 · 위탁을 준 기관 : 법무부 · 위탁주체 : 소년원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분류보호팀장, 대안교육 담당(2)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관내 학교 위탁 - 심사 - 입학 · 학생 위탁 사유 : 교내 부적응(폭력, 근태 등)

	· 학생수 : 정해진 규정 없음 · 학급수 : 1학급 · 학년 : 1주일 프로그램 · 위탁기간 : 평균 5일(1주일) · 대안학교 운영공간 : 소년원 내 대안교육시설 · 운영시간 09시~17시
재정	· 교육청 예산과 법무부 예산이 결합됨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소년원장, 분류보호팀장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행정과 수업을 진행하는 공무원 3명과 유급교사 4명 · 교사선발과정 : 소년원 내 인사발령
교육과정	· 교육목표 : 학교 부적응 학생 선도, “범법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임. · 교육내용 : 보통교과는 없고 범법행위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상담, 약물,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 · 교과과정 : 5회기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대안학교 이외에 중복적인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지원체계

별다른 지원체계는 없으며, 법무부에서 설립되어 소년원 안에 위치한 대안학교들이 서로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실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연 2회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 자체적으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월별보고를 실적 위주로 보고하도록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기존의 소년원에서 대안학교로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목할 만한 성과나 특성화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차후 정보통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대안학교 모델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발전전망에 언급되어 있다.

㉔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국가지원을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대안교육에 사용하기 보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대안교육의 대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합쳐서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대안교육을 폐지하고, 현재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90%정도 인데, 이것을 국가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국가가 담당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씨가 나쁘지만 말이 좋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학교 담당 교사 의견)

다른 소년원 내 대안학교와 달리 법무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에 대한 비실효성과 형식, 실적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대안교육에 대한 생각에 따라 대안학교의 발전방향 더 나아가서는 대안교육의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대안학교가 기존 조직에서 분리되어 인사, 행정, 자원, 조직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이 표현되었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인성교육 위주로 5일간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별도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대안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방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학교의 경우 진로와 취업보다는 대안학교를 통한 사회복귀나 환원이 주요 교육목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일반 대안학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교화나 선도 중심에서 재교육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학교에서도 학생의 취업 및 진학을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대안학교의 방향 설정에서 가정문제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제시된 의견에서 보면, 대안학교에 들어오는 90%이상의 청소년이 가정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바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청소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위의 의견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존 청소년기관에서 대안학교의 독립과 자율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송천정보통신학교 대안학교 담당자의 경우 독립적 운영을 선호하는바 청소년기관과 대안학교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⑬ 전주대안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6년 · 조직: 센터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교육디렉터(2), 상담사 · 법인현황 : 조직현황은 대안학교 조직도와 동일 · 대안학교 유형 :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위탁교로 통학을 하는 도시형 대안학교 · 위탁주체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위탁을 준 기관 : 전주시청 · 위탁년도 : 2006년 12월 · 청소년기관 조직 구성 : 센터장(교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교육디렉터, 상담사 · 학생 위탁 사유 : 전라북도 관내 중고등학생 중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비적응 학생 · 학생수 : 무학년제 2학급(학급당 20명 이내) · 학급수 : 무학년제 2학급 · 학년 : 무학년제 · 대안학교 운영공간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04번지 총 2,644m² 강당, 만화방, 휴게실, 붓글씨방 등
재정	· 전주시와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 - 기관 전체 연간 재정 규모(세입 및 세출), - 기관전체 예산대비 대안학교 예산비율 등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센터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교육디렉

	- 터(2), 상담사 등.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직원 전원 · 강사, 자원인력 : 전문강사(16), 자원교사(2) 등 26명
학사운영	· 학적 : 원적교와 동일 · 성적평가 : 위탁 학생의 성적 관리는 원적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원적교의 성적관리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 위탁해제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기타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위탁학생이 소속 학교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에는 대안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수탁을 해제할 수 있다. · 위탁기간 : 2년
교육과정	· 교육목표 - 도덕성을 갖춘 올바른 학생 - 실력을 갖춘 능력 있는 학생 - 비전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학생 - 더불어 사는 사회봉사적인 학생 · 교육내용 : 보통교과, 대안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 특성화 교육 : 비즈공예, 연극치료 등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교사 구성은 청소년기관직원 6명이 모두 교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교과목 시간강사 26명이 있다. 하지만 교직원 차원에서 자기개발 및 직원연수에 대한 기회가 부족한 현황이다. 이 부분은 대안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부 차원이든 공적인 부분에서 보충해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 또한 정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의 지원도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curriculum

전주대안학교의 주요 교육목표는 도덕성, 능력, 비전, 사회봉사적인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교과과정 운영은 이런 목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도덕성을 갖춘 올바른 학생을 만들고자 하고, 실력을 갖춘 능력 있는 학생, 비전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학생, 더불어 사는 사회봉사적인 학생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일주일 적응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습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학부모와 교사 상담을 거쳐 아이들이 진로 탐색도 하고, 학생MBTI검사라든지 독서를 통해서 독후감을 작성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일주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계획서를 작성하게끔 해서 일주 적응과정을 받고, 이주차부터는 본 프로그램인 본 수업에 들어갑니다. 보통교과와 대안교과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에 있습니다.”(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중학생의 경우 진학 쪽에 희망이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원적 학교와 진학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적이 원적 학교 소속이고 학교 부적응 중고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취업이나 진로개발은 비교적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관심을 보이는 학생에게 취업, 진로, 진학 등을 도와주고 있다.

▶ 지원체계

청소년기관안에 위치한 대안학교로서 넓은 부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겸비하고 있어 운영공간과 장소는 적절하다. 주변 환경도 공업단지에 위치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의 걱정도 없으나 20년 이상 된 건물과 기자재의 노후화에 불편함이 있다.

시설 외적 지원체계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직영되는 꿈누리교실(대안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꿈누리학교는 학생정원 10명임에 비하여 예산지원이 본교보다 굉장히 많음. 전주대안학교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개 학급을 축소하여 1개 학급만 운영하는 중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하다.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전주시와 전주교육청이 함께 지원해주는데 지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청에서 함께 지원되는 재정이 인건비 및 관리 운

영비라든지 시설비와 대안교육비는 전주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에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구요. 대안교육 강사비 및 수업재료비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07년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2008, 2009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받고 있는 재원 중에서도 일부분은 대안교육비로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학교에서는 전주시 및 전라북도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지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 시키고 교육청에서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외부 프로젝트 공모를 해서 외부 자금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는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으로 방학 때 서울에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견학하기도 하며 전라북도 교육청에 위탁형 대안학교 4개교가 대안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며 참관수업도 하고 대안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안교육센터와 위탁형 대안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서 대안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와 같은 거점 기관의 서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꿈누리 교실이 학생 10명인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 사용에 의미가 없어요. 위탁형 대안학교에 예산을 좀 더 나눠주어 학생을 더 많이 수용하게 하면 좋은데, 2007년도에 2개 반을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1개 반으로 줄였어요. 이유는 반이 2개로 늘어나면 예산이 그만큼 2배

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람이 있다면 꿈누리 교실이 대안교육 종합센터로 개편을 해서 정보화 프로그램 등 대안교육 발전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서울대안교육센터 같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사례 1 : 학생의 욕구와 적성을 개발하여 취업과 진학지도

전주대안학교의 경우 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학생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계해서 취업과 진학 등의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생 중에 미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미용실과 연계해서 실습도 하고 취업도 직접 하계끔 지도를 했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자동차 정비과에 대학 진학을 하계끔 해서 우리 학교로 봉사활동을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대안학교 사업은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본교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대안학교를 좀 더 성장시켜 기숙형식의 운영을 통하여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과 군산에 캠퍼스 개념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교 발전에 따른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교직원 전문연수 형태의 전문성 발전이 필요하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중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쪽을 많이 선택하고 고등학생은 취업 방면의 길

을 선호한다. 때문에 원적교와 연계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적이 원적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중고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진학이나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연계해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는 운영을 하려는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엔 예산부족과 원적학교와의 연관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주대안학교의 경우 비록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적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는 면접내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전주대안학교 담당자의 의견처럼 대안학교의 변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대안학교 5개년 계획”(가칭) 등과 같은 국가(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계획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특목고형의 대안학교보다는 근원적인...그러니까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의 원개념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원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변색이 돼서 마치 영재들을 위한 특목고 형식으로 변형이 되어 부적응을 위한 대안학교는 묻혀버렸어요.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둘째, 도시형 대안학교 외에 지방에서는 통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숙형 대안학교의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대안학교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형성이외에 학생과 학부모 즉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면접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대안학교 학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적응이외에 가족적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주지역 같은 지방에서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처럼 지역 대안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역할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⑭ 대안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7년 명칭변경 · 법인현황 : 법무부 · 위탁주체 : 소년원 · 위탁을 준 기관 : 법무부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분류보호팀장, 대안교육 담당(2)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관내 학교 위탁 - 심사 - 입학 · 학생 위탁 사유 : 교내 부적응(폭력, 근태 등) · 학생수 : 정해진 규정 없음 · 학급수 : 1학급 · 학년 : 1주일 프로그램 · 대안학교 운영공간 : 소년원 내 대안교육시설 · 운영시간 09시~17시
재정	·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자체 재정 + 교육청 지원.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소년원장, 분류보호팀장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대안교육담당자(2)(총 직원 80명 중 대안학교 담당자는 총4명) · 교사선발과정 : 소년원 내 인사발령
교육과정	· 교육목표 : 학교 부적응 학생 선도, 비행예방, · 교육내용 : 상담, 약물,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 · 교과과정 : 5회기

나. 면접내용 분석¹²⁾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인력 자체도 부족한 형편이며, 담당직원들은 예산, 교육장소 등에 대한 욕구 역시 가지고 있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성교육, 음악치료, 약물남용 등 정도만 유급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 curriculum

대안학교에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보통법규, 학교폭력법규, 절도예방 등이 들어가 있으며, 입학하는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교육종류

-
- 12) 대전 대산정보통신학교와 같은 곳에서의 대안학교 운영방식은 주로 보호소년에 대해 나누어서 보호처분에 대한 부분을 맡고있는데 소년원에서 맡는다. 그 외 법률적으로 소년보호처분에 관련된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학교가 특별교육이 되어 있다. 그 안에 상담조사에 대한 교육, 검사정조 조작검사위으로 구분된다. 이미 소년사범으로 결정된 학생들, 소년사범으로 결정되기 전 법원에 심리가 계류 중인 상태이며 그 학생들을 위탁이나 불위탁이나 나눈다. 위탁이면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최종 심리를 받는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위탁생이라고 하고 위탁은 청소년의 도주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청소년의 특성을 좀 더 알고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판사가 위탁을 시키고 있다. 위탁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불심사서를 만든다.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위탁 안에 들어간다. 심리검사, 인성교육,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을 하고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불심사관이 불심사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보내면 판사가 그걸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담 조사서가 있어도 위탁되지 않고 2~4일간 교육을 시키면서 상담조사, 보호자 상담, 적성검사, 심리적 특성파악 등을 상담 조사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보여 주면 이것을 보고 최종 심리를 결정한다. 보호처분 안에 1-10호까지가 있는데 10호 내에 1-5호까지 보호관찰관 상담조사 받을 정도면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대안교육 안에 들어가 있다. 대안교육 안에는 명령이라는 게 있고 법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때 한 달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한 달간 여기서 통학을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것을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성교육, 학교폭력교육, 절도교육, 다양한 체험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지금은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다 보니 안하고 있으며 대신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보호처분 안에 8호라는 것이 있는데 1개월짜리 교육이 있다. 명령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명령은 통학으로 교육을 받고 8호 처분은 같은 1개월인데 보호처분을 받는 것처럼 위탁되어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 2개는 학교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차이에서 받는 교육이 다르다. 상담조사 법원에서 연결 된 부분 센터, 시교육청, 일반 학교를 연결해서 대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의 비중이 달라진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죠. 기본교육은 다들어가 있고요. 보통 법규, 학교폭력, 절도예방, 교통안전, 사이버(게임, 사이버 범죄), 성교육, 약물남용, 심리치료 등 일반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등이 많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등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요 상담에서 오는 학생들은 비행명을 보면 절도해서 오면 절도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거예요, 쉬는 시간도 안줘요 계속 시청각교육 시키고 감상문 쓰고, 머릿속에 있는 걸 싹 빼서 고쳐나가게…”(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법무부 산하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이처럼 교육의 의의를 대안교육의 의미보다는 교도 또는 교정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었다.

▶ 지원체계

먼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공동모금회 같은 공모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의 장점도 있지만 기관의 정체성에서 보았을 때 방향성의 혼란이 가능하므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에서 대안교육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의뢰하는 학교 등에서 인식이 많이 좋지 않다.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보다는 그들이 먼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소년원이라는 건물 안에서 대안교육을 시킨다고 하니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인식도 달라지고, 그런데 사회적 전반으로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소년원은 나쁜놈만 간다는 것이 라니라 나쁜놈도 같이 있지만 일반 학생도 견학해보고 나쁜 것을 하면 이렇게 들어 올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

다고 생각해요.”(대안학교 교사의 의견).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이므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년원 내 대안교육을 하나의 큰 취지로 보아야 한다.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대안학교는 학교생활 지도 지원 차원에서 발전해야 한다. 인력, 교육자료, 정보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접근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서 학교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력이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대전 대안학교의 경우 인성교육 위주로 5일간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별도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런 단기간의 교육에서도 효과가 있으려면 학교와 가족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학교나 학부모가 대안학교에 학생들을 위탁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때문이며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대안학교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⑮ 신촌정보통신고등학교

가. 기관현황

영역	세부사항
일반현황	· 설립년도 : 2007년 명칭변경 · 위탁주체 : 소년원 · 위탁을 준 기관 : 법무부 · 청소년기관 내 대안학교의 조직구성과 업무 : 분류보호팀장, 대안교육 담당(2) · 학생선발과정 및 방법 : 관내 학교 위탁 - 심사 - 입학

	· 선발내용: 법원 의뢰, 검찰청 의뢰, 일반학교 의뢰 등 · 학생 위탁 사유 : 교내 부적응(폭력, 근태 등) · 학생수 : 정해진 규정 없음 · 학급수 : 1학급 · 학년 : 1주일 프로그램 · 대안학교 운영공간 : 소년원 내 대안교육시설 · 운영시간 09시~17시
재정	· 법무부 자체 지원 운영
인력(교사)	· 청소년기시설 전체 인력 : 소년원장, 분류보호팀장, 분류보호과 총 15명, · 청소년기관중 대안학교 전담인력 : 총 2명이 대안교육 담당, 6명은 과목마다 담당 · 강사, 자원인력 : 8명 · 교사선발과정 : 소년원 내 인사
교육과정	· 교육목표 : 학교 부적응 학생의 인성교육과 재충전 · 교육내용 : 상담, 약물,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 · 교과과정 : 5회기

나. 면접내용 분석

㉠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 인력

법무부 내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를 배정받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인력에 대한 특정 욕구가 없다.

▶ curriculum

5일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과과정이나 대안교과 과정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인성교육(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지원체계

소년원 내에 위치한 대안학교 특성상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는 특정 욕구가 없지만 교육공간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좀 더 큰 대안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체험위주의 교육보다는 진로에 중점을 두고자하는 의사가 있다. 외부적으로 지원체계 보다는 일반학교와 연계체계가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있다.

재정적으로 거의 일반학교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을 기

숙시킬 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거리 지역 학생들은 통학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일반학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는 학교의 공간이 적어서 좀 더 큰 대안교육 시설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었다.

정보통신학교 내의 대안학교 담당 선생님간의 협력은 잘 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관내 일반학교가 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 10개 학교와 네트워크가 되고 나머지 학교와는 잘 되지 않고 있다.

㉠ 특성화 사례 및 성과 사례

작년에 1년 동안 56명의 근태불량 학생을 보낸 학교가 있었는데 6개월 뒤 재조사해본 결과 그 중 53명이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작년에 원주정보공고에서 1년 동안에 56명을 보냈는데, 대부분 근태 불량 학생 이였습니다. 교육 후에 조사를 하였는데 53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조사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진지 6개월 만에 조사가 이루어 졌어요.”(대안학교 담당 교사 의견).

비록 이 학교에서 다시 원적 학교로 복귀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성격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을 때 다른 민간 위탁 대안학교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부적응 이유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일률적으로 보고 단기간 내에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시적인 효과를 통해 계속적으로 학업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는 대안학교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 대안학교의 발전 전망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지정 된 후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기숙형을 운영하였지만 인력부족으로

지금은 통학을 중심으로 교육만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전망에 대해서 사회가 분화됨에 따라 부적응학생들이 더 많이 출현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안학교의 중요성이 높아져 대안학교는 발전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 방안

신촌정보통신학교는 기존에 검찰과 연계되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역 일반학교에서 많은 의뢰가 와서 오히려 일반학교와의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되어 비록 인성교육 위주로 5일간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별도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에 대한 욕구는 있었다.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현황 조사 분석

1) 면접결과분석 소결

(1) 면접결과분석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발전방안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15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하여 대안학교의 현 실정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접결과는 기록하고 녹음되어 분석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한 고려해볼만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에 앞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대안학교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은 대안학교의 철학과 미션, 국가정책적인 측면, 청소년기관과의 관계, 대안학교 운영의 측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안학교 주체의 측면 그리고 대안학교 교육의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특성은“진화하는 대안학교 : 대안학교의

양적성장과 질적인 변화”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안학교의 철학과 미션에서 보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대안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본 내용을 토대로 생각할 때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도전과 고민을 볼 수 있었다. 즉 지난 10년 동안 대안학교가 발전된 이후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해야 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향후 대안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관련 주체들의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조사대상 대안학교의 경우에 각자의 현실에서 대안학교의 전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둘째,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인정, 실질적인 지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청소년기관과의 관계에서 청소년기관에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 청소년기관에서의 자율성(독립성)과 자원 등의 활용성에서의 적절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관계로 몇몇 대안학교 들은 새로운 조직형태나 새로운 관계형성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조사대상 중 조사시점에서 청소년기관로부터 독립한 경우도 있었고(광진 등) 소속을 변경하거나(하자 등), 청소년기관로부터의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을(소속은 그대로 하면서도) 고민(일부 정보통신학교 등)].

넷째, 대안학교 운영의 측면 역시 재정적인 부분은 대안학교 운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수업료, 교육청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후원, 기금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시도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된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 주체의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에서 볼 때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조사대상의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외형적으로 긍

정적인 관계형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체적인 학부모의 무관심과 가족문제 등은 대안학교가 학교의 기능만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의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하자 등) 일반교과와 특성화교과의 양대 교과로 구성되었다. 각 대안학교에서 담당 교사들은 이 특성화 교과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 특성화 교과를 살려서 그것을 대안학교의 핵심 교육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하자의 작업장학교,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송파한들학교의 자전거 여행 등) 이런 대안교육의 아이디어는 다른 대안학교로 전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정보통신학교에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5일라는 단기간의 대안교육으로 그 효과의 장기성, 명확성 등이 담보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다.

(2) 시사점과 제언

대안학교 면접분석결과 이상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대안학교를 볼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안학교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하려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비록 공교육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대안학교와 기존 공교육에서의 일반학교를 구분해주는 지점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기관에서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학교의 철학과 미션의 차원, 정책적 차원, 교육적 차원, 청소년기관의 차원에서 고려해볼만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대안학교 철학과 미션의 차원

- 대안교육운동의 관점 논의 : 교육부의 미흡한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이고 사회적인 대안교육 운동 전개 (교육세 환급운동, 대안교육 운동 등)
- 소규모 도시형 대안학교의 형성 :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를 모델링
- 사회변화에 따른 대안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

학생과 부모의 기대와 욕구 수준의 향상으로 대안학교의 체질적 업그레이드와 교육의 질적 변화가 요구됨.

- “대안학교의 대안교육은 권리”: 기존에 대안학교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서 대안학교의 대안교육은 권리라는 인식의 대변환이 중요함.
- “대안학교 학생은 학생이 아니다”: 국가와 교육부의 대안학교에 대한 대안적인 인식 전환과 지원
- “대안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이외에 학부모도 주체다”:
기존에 대안학교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학부모의 욕구 개발, 관심과 참여 동기부여 등
- 대학교육의 변화 :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학교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② 청소년 정책적 차원

㉠ 제도

- “청소년 대안학교 발전 5개년 계획(가칭)” 수립 제안
- 교육부 제언 : 대안학교도 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마련.
- 복지부 제언 : 대안학교에 오는 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많으므로 복지 지원강화
- 독립적인 소규모 도시 속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대안학교 인증제” : 학력인정, 사회적 인증 등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도입
-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연계 및 교육청의 대안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지역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대안학교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서울의 경우 등)
-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 방안 모색

㉞ 법

- 교육복지차원에서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기준 완화
- 대안교육법제화 및 조례 개정: 교육세의 대안학교 투자 등

㉟ 재정

- 위탁형의 경우 기존의 재정방식보다는(서울시 교육청, 수련관 지원, 공모사업 등의 매칭 펀드 형식 등)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이 바람직함
- 재정적 지원과 개발 : 교육부, 교육청의 안정적 지원, 후원금 및 기금 사업 등의 자원개발

㊱ 대안학교 교사

- 민간단체 독립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 교사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복지 지원
- 교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안학교 교사의 직무개발을 위한 특성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예, 공모사업 프로포절 및 프로그램 기획, 평가 교육 등)

㊲ 대안학교 강사

- 대안교육종합센터 등에서 대안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강사풀 활성화

③ 교육적 차원

㉠ 교육과정

- 다시 학교 복귀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 학습 지원(위탁형 대안학교 등)
- 위탁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인정 지원체계 마련

㉡ 교육내용

- 대안학교에서 청소년이 전문직업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예, 바리스타 전문가과정 -용인 대안학교)
- 대안학교에서 학생, 교사 이외에 부모의 참여 및 동기부여

㉟ 교육방법

- 대안학교 매뉴얼 개발: 운영 매뉴얼 및 대안학교 교사의 교수법 개발
- 일반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도화(일반 학교와 대안학교의 정례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정보공유,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 제고 등)

㊱ 특성화 과정

- 졸업생과 연계된 프로그램 수행(예, Home Coming Day, 졸업생이 대안학교 교사로 활동 등)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 활용: 예, 헬스장 트레이너 보조 등)
- 봉사활동 프로젝트 운영(봉사활동을 통한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 개발)

④ 청소년기관의 차원

- “지역형” 대안학교의 모델 개발 : 도시에서 지역의 주민, 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동기부여(예, 광진구)
- 기존의 청소년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학교 운영 체제 구축(예, 서울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대안학교 운영 등). 이럴 경우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수련관이 대안학교 운영상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대안학교가 청소년시설에서 독립하여 대안학교의 철학과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
- 대안학교 관련 네트워크 개발과 대안교육 운동의 모색

⑤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와 취업 차원

- 기본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 : 대안학교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대안학교 학

생에 대한 이미지 변화

-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안학교 청소년의 청소년기관 및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과의 접촉 및 이해 기회 마련
-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한 진로와 취업의 준비(인턴십, 창업 등)
- 대안학교 과정 자체를 학생의 삶으로 체화하기(하자작업장학교 등) :
대안학교를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대안학교를 자신의 생활터전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곳으로 형성
- 대안학교 지원센터 강화 : 강사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대안학교 교육 매뉴얼 개발 등

이 외에도 제한적이지만 조사대상 청소년기관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서울과 지방에서 지방의 대안학교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볼 때 제한적이지만 조사대상 기관 중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안학교가 지방의 대안학교보다 자원 및 경험의 측면에서 양적 및 질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조사결과 지방 대안학교에서 서울 대안학교로 견학을 오는 경우도 있다. 이제 전 지역에서 대안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때 지역차원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선진적으로 지역 교육청의 대안교육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또한 도시에서 진행되는 도시형 대안학교 외에 지방에서는 통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숙형 대안학교의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전주지역 같은 지방에서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처럼 지역 대안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역할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둘째, 청소년기관과 대안학교의 자율과 협력적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청소년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장점(자원 활용, 공간확보, 재정지원 등)과 단점(특히 쉼터 등에서 출발하여 대안학교로 발전된 형태를 가지는 경우 대안학교 운영에서 여러 시너지 효과가 발견된 만큼 대안학교의 전망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용인, 전남 등). 또한 청소년 시설 별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쉼터, 정보통신학교(구 소년원) 등의 형태에서 대안학교 운영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쉼터의 경우 대안학교 모델과 운영이 적절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보통신학교의 경우 아직 출발단계라서 발전전망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만 정보통신학교에서 대안학교는 기존의 다른 조사대상 대안학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법무부 산하, 5일 수업의 단기적 운영, 대안학교 운영목표와 설립이념의 차별성 등). 정책적 차원에서 정보통신학교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모델과 발전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IV.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외국 사례

1. 독일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 영국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IV.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외국 사례

1. 독일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독일 청소년 역량개발의 청소년 정책적 기초

독일의 청소년정책을 기초하는 원천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지원법」¹³⁾이다. 이 법의 제1조 1항에는 “모든 젊은이는 스스로 책임지고 공동 생활할 능력 있는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 지원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3조 1항에는 “청소년지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특별히, 젊은이들이 개인적, 사회적 계발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차별을 지양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독일 청소년의 실업문제나 역량개발의 과제에 있어서 정책적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실업문제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의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의 기회에서 결손된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제13조(청소년사회사업)에서 아래와 같이 특별한 법적 조항을 통해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사회적 불이익의 조정 혹은 개인적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로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청소년지원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직업세계로의 편입,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장려하는 사회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13)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2. 이러한 젊은이들의 직업교육이 다른 담당자와 조직의 조치와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젊은이들의 능력과 인격발현상태를 고려하는, 적절히 사회교육학적으로 안내되는 직업교육조치와 근무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젊은이들은 학교교육조치나 직업교육조치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직업에로의 편입에 있어서, 사회교육학적으로 지도되는 주거형태에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젊은이의 긴급한 생계비 또한 보장되어야 하고 제40조에 따른 의료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4. 제공되는 내용들은 학교행정의 조치, 근로자를 위한 연방행정기관의 조치, 기업상·기업외의 직업교육 담당자의 조치 및 근무제공 담당자의 조치와 조절되어야 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연방교육·연구부」¹⁴⁾에서 일반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지만 위의 2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¹⁵⁾의 청소년사회사업¹⁶⁾ 정책을 통하여도 위와 같이 결손된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원조치는 모두 의무조항으로 되어서 국가의 청소년 역량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

2) 독일 청소년의 취업 관련 일반 현황

독일의 「연방통계청」¹⁷⁾의 2006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직후인 1991년 독일의 17~25세 청소년들의 진학률은 아래의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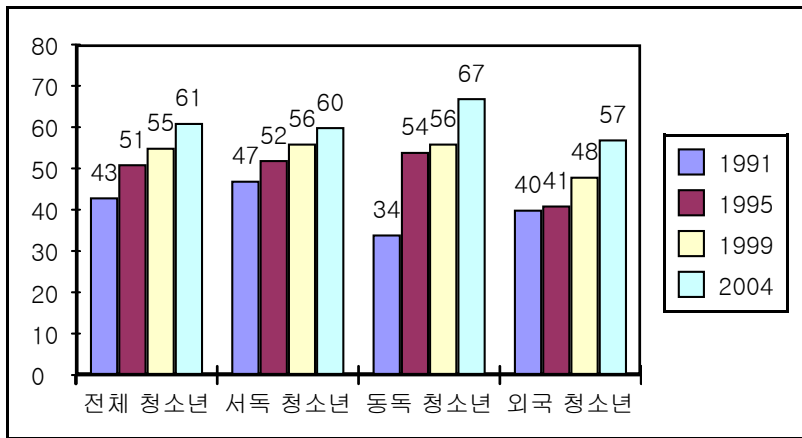
14)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1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16) 우리나라 대학은 청소년에 대한 주 전공을 청소년학과에서 이수하거나 사회복지학과에서 부분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나 독일의 대학은 교육학부 내 사회교육 전공에서 수행토록하고 있고, 학교 밖의 청소년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교육부서가 아니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다루고 있다.

17) Statistisches Bundesamt

같이 43%였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61%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구 동독의 청소년들은 같은 기간에 34%에서 67%로 거의 2배나 넘게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림 IV-1] 독일의 청소년(17~25세) 진학률(%)

청소년 실업률은 독일에서도 노인, 여성 실업률과 함께 사회문제로 심각 한데 청소년의 실업은 직업경력의 손실과 함께 사회성의 위축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주목되고 있다. 청소년 실업률과 독일 전체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 와서는 전체 성인의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청소년 실업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8) Statistisches Bundesamt(Hrsg.). Datenreport 2006.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zug aus Teil II.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 543

<표 IV-1 > 독일의 실업과 무직 현황

	등록 실업자 ¹⁹⁾				ILO 기준 ²⁰⁾ 무직자		
	1991	1995	1999	2004	1995	1999	2004
	단위 (%)						
전체 청소년(17~25세)	5	8	7	10	8	10	12
서독 청소년	3	6	6	9	6	7	11
동독 청소년	12	8	9	11	8	10	14
외국 청소년(서독)	4	17	15	17	17	21	23
전체성인(26~60세)	5	9	8	9	5	6	8

출처 : 독일 연방통계청(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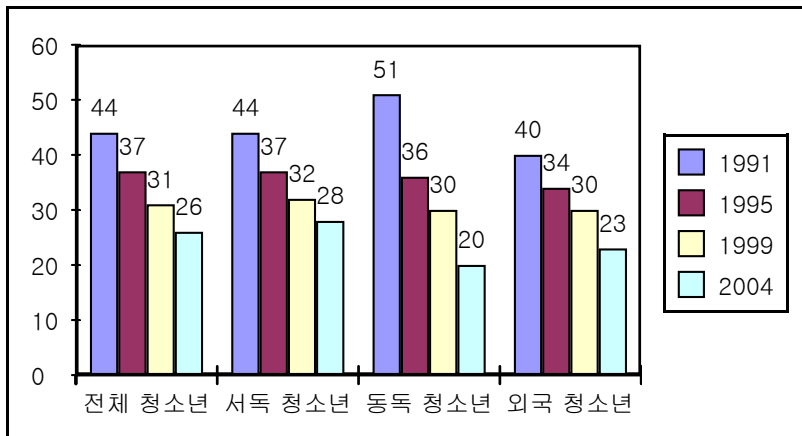
한편, 아래의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에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많이 악화되어 1991년 44%였던 것이 2004년에는 26%로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취업률에 있어서도 구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은 51%에서 20%로 31%나 떨어져 심각한 고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 동독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의식하여 통일 직후 2004년 까지 2배가 넘는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의식해 학교에 진학을 하였다. 그 결과 구 동독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1991년 12%에서 1999년 9%로 떨어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체제의 가속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독일에서도 피할 수 없어 2004년에는 다시 11%로 구 동독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위의 표에서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은 외국인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증가일

19) ‘등록된 실업자’는 독일의 연방노동서비스기관에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은 등록되지 않아 청소년의 실제 실업률은 이 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Shell-Jugendstudie의 1997년 통계를 보면 18~24세의 청소년들의 61%가 성인의 위험한 노동시장 조건이 청소년 성장과정의 중심에 다다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eichan, P.(1999). Stellungnahme aus der S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p. 59~65,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Hrsg.). Jugend ‘97. 12. Shell-Jugendstudie. Opladen

20) 무직자를 가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은 조사 당시 직업이 없거나, 향후 2주 후부터 일이 있거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로에 있어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2] 독일의 청소년(17~25세) 취업률(%)

3) 정부의 model program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사업”²¹⁾

(1) 모델 프로그램의 취지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명시되었듯이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독일은 청소년들의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직업적 전문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인의 노동의 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이후로 평생 자신의 전문적 직업영역을 갖지 못하게 늘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을 통하여 무엇보다 실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정부와 함께 대책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모델로서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실험적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세계로의 통합을 위한 한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서의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

21) Streichan, P.(1999). Stellungnahme aus der S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p.61 참조,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p. 59~65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13조이다. 이 조항에서는 특별히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대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결손된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에의 청소년지원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과 관련된 역량개발과 고용을 새롭게 연결해주는 예방적 대책과 여성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취업지원, 동서독 청소년들의 통합, 청소년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의 대책들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는 어떻게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그들의 삶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얻어내는 데 있다. 즉, 독일 정부는 청소년들 중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적의 교육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가 주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방법적 인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모델 프로그램의 시사점

모델 프로그램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사업”에서 얻어진 인식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사업은 먼저 직업적,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전제조건들과 생활상황, 욕구들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은 전통적인 발달장애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교육상황이 심각한 청소년들이나 성취동기가 결여된 청소년들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독일 사회에도 고용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차 고용으로의 진입이 늦춰지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교육연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교육의 질적 강화와 양적 확대가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상황인식이 프로그램 수행의 결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일자리를 위한 청소년사회사업은 전제조건들, 삶의 상황들 그리고 욕구들을 차별화하

고 동시에 전문적으로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과도기에 맞는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연령에서의 예방적 제시는 경쟁력이 없다면 단순히 학교 졸업성적에만 목표를 두지 말아야 하고, 졸업장 이외에 공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에서의 직업교육을 통해 사기업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에 맞는 역량개발을 중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얻어진 인식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참여자들의 새로운 협력과 협력관계의 질에 대한 요구이다. 즉, 이러한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몇몇의 의욕 있는 선생들과의 좋은 관계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결속력 있는 학교행정과 학교지도와의 협의들이 필요하고, 노동관청과의 좋은 관계가 - 지속적으로 직업을 준비하는 대책과 직업훈련 지원, 사회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보장 - 기업들, 정부의회, 경제지원기관들, 공공단체장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세계와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은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청소년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안들 사이의 조정의 어려움을 혼자서 하거나 또는 이론으로만 해결하려하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세계와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은 결국 여러 차원에서 중개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얻어진 결손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질이 노동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사회사업은 이러한 부서 청소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청소년사회사업이 보다 비제도적이고 비형식적이라 결손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과 출구상황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손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사회사업 사례²²⁾

아래에서 보여주는 결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사회사업 사례는 독일 지방 농촌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베저-엠스(Weser-Ems) 지역에서 1989~1992년에 수행되었던 모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결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역량강화와 고용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100여명이 참가하고 10개의 부분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바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즉, 서로 다른 학업적, 직업적 전제조건들을 가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특별히 의미 있는 고용의 장(field)과 미래의 노동수요에 맞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생 폐품 recycling, 자연보호와 환경미화 등에의 역량개발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재건축

재건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교회단체의 지원으로 2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개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일이었다. 재건축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자재들을 간직하거나 재건축하는 일, 잘 형성되어온 경관을 보존하는 일, 건물들을 가장 새로운 생태학적 지식을 가지고 시대에 맞도록 이용가치를 확대하는 일들이었다. 프로젝트는 고층건축전문가 외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정규 직업 졸업장과 관련지어 수행되었다. 이러한 자격획득 과정은 참가자 남녀에게 “고층건축전문가” 직업훈련계획에 해당하는 전문실습과 전문이론이 중개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3년간의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된 후 고층건축전문가 외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3년간의 프로젝트 과정을 마친 후에 참가자 남녀 모두에게는 한 건축회사에서

22) Christe, G.(1999). Perspektiven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jenseits des regulären Arbeitsmarktes und traditioneller Berufsorientierung. Fähigkeiten und Kompetenzen für Alltagsbewältigung. 참조,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p. 129~137

계속적인 관련 직업훈련이나 다른 건축 관련 직업훈련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미장이(벽돌장이) 자격시험을 마치도록 되어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고층건축전문가 외부 시험 준비하는 동안 실습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몇몇의 청소년들은 이미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고용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② 재생 폐품 recycling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었던 recycling 프로젝트 참가 청소년 남녀 모두에게 공인된 직업훈련졸업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리사이클링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재건축 직업훈련과는 달리 단계적인 직업훈련과정이 없기 때문에 정규 직업훈련 과정을 졸업하거나 6년간의 리사이클링 영역에서 근무하고 6주간의 이론과정을 마친 후 외부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공인된 직업훈련졸업장을 중개하는 것 인지라 참가 청소년들이 이러한 정규 직업훈련의 조건들을 개인적인 조건들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폐품 가공자”와 같은 직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규 직업훈련과정과 같은 전문적 실습과 이론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고유과정을 프로젝트 내에 설치하였다. 이 과정 이수 후 참가 청소년들이 이어서 2년간의 재교육 과정을 더 이수한 후 정규 직업훈련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발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사업과 리사이클링 개념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새로운 기술혁신을 - 예를 들어, 새로운 재생폐품 수집체계 개발 등 - 개발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자치단체의 과제를 개선하기를 기대하였다. 참가 남녀 청소년들은 그들의 중간시험과 최종시험들에서 매우 높은 전문 역량을 증명하였고 자치단체의 리사이클링 교육관에서 실시된 재교육 과정도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몇몇의 참가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종료 후 자치단체 관련 부서나 관련 사기업에 취업이 되었다.

③ 자연보호와 환경미화

위의 두 프로젝트와는 달리 한 다른 자치단체의 “자연보호와 환경미화” 프로젝트는 직업훈련졸업을 목표를 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참가 남녀 청소년들에게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경험들과 역량들을 가지고 관련 직업세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고 무조건 관련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지 않았다. 참가 청소년들은 가정정원사, 농지정원사, 숲 관리자, 관련 직업들에 맞는 역량들을 규정에 맞추도록 갖추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량들은 특별한 전문 지식들이어서 직업훈련과정에서 배워야만 했기 때문이다. 비록 정규 직업훈련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 과정의 참가자들은 수준이 높은 역량을 습득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후 한 참가 청소년만 관련 직업을 얻게 되었고, 다른 소수의 참가 청소년들은 다양한 많은 관련 현장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수요가 있고, 이론과 실천으로 졸업시험도 잘 치러 역량을 갖춘 참가자들이 고용되지 않은 이유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요한 생태학적 과제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고용창출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노력들을 값싸게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4) 독일의 결손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시사점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역량개발에 있어서 체제적으로 많이 다르다. 먼저 독일사회와 독일의 교육체제는 한국과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 학벌사회를 형성하고 이 학벌사회가 다시 교육체제를 지배하는 악순환 구조가 없다. 독일은 독일의 교육사에서 모든 교육기관들이 서열화된 역사가 없다. 모두 국가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평준화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는 사교육도 없고, 0교시 수업도 없으며, 영재교육체제도 없으며, 단지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아비투어(Abitur) 시험만이 있을 뿐이다. 이 시험은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달리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준 점수만 맞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아비투어 성적은 대학 입학 여부만을 결정하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아비투어 성적의 높고 낮음은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는 데 의미가 없다. 즉, 중등교육과정까지는 기초를 충실히 습득해서 대학에 가서 실제로 경쟁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노력하게 된다.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어도 독일의 경쟁력은 세계 수출 1위를 놓치지 않음에서 드러나고 있다.²³⁾

독일의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은 안정된 교육정책 체제에도 있지만 일찍부터 잘 정리되어 발전되어 온 직업훈련 교육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인문계 고등학(Gymnasium) 외에, 전문적 직업교육을 하는 직업학교(Realschule), 그리고 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훈련학교(Hauptschule)의 대표적인 3종류의 중등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두 학교체제와 또 다른 직업전문학교들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찍 직업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직업교육 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ual system을 중세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 자격을 획득하는 도제제도로부터 도입하여 학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제도가 일찍부터 천착되어 지금의 독일의 경쟁력을 가져왔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직업교육은 인문계 교육에 못지않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지위와 신분 및 전문성이 보장되고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결손청소년의 의미는 이러한 직업교육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독일정부의 모델 프로그램이나 기초자치단체의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결손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기회를 위하여 마련된 것들이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한국의 결손 청소년들이란 바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에 재적만 두고 졸업장이라도 따기 위해서 청소년기관 및 기관에 대안학교라는

23) 최근 2009년 통계에는 독일이 처음으로 총 수출량에서 중국에 뒤져 세계 2위로 나타났는데 미국, 일본, 중국의 국민 1인당 수출을 보면 단연 세계1위이다.

이름을 주고 붙들려 있는 청소년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비록 독일의 결손청소년들과 달리 대안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미래 그들의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대안이 없는 결손청소년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진로와 직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독일의 직업학교에 해당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중등교육과정이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포함이 된다. 현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나, 미용고등학교, 게임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예술종합고등학교 등의 고등학교가 점차 늘어나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태부족이고 전문계 고등학교가 제대로 그 설립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결손청소년들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육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를 청소년정책에서 이끌어 주려는 시도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결손청소년들의 ‘결손’을 개인적 이유로 돌리지 않고 사회적 이유로 보는 근본적인 변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기관들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결손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프로젝트들은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대안학교들도 뚜렷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관련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이러한 결손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희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들에게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프로젝트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한다.

2. 영국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²⁴⁾

1)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노동시장 개입 정책

아래에서 서술하는 영국의 사례는 청소년시설에서 위탁받은 대안학교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일찍이 1980년을 전후로 조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사례가 있어 이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래의 표는 영국에서 1970~1980년 사이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업과 총 실업자 수에 관한 표이다.

아래의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1974년에 13,300명이었는데 1976년에는 6배나 많은 81,600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1960년대에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 어쨌거나 이러한 청소년의 고용에 대하여 수요가 적은 상황에 대하여 영국의 정부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1970년대 중반의 청소년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1975년부터 직접 개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개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²⁵⁾) 지급, 청소년고용 보조금(YES²⁶⁾), 근로체험 프로그램(WEP²⁷⁾),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²⁸⁾)들이다. 영국 정부가 조기에 청소년 실업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실업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청소년실업 문제의 해결의 비용이 치료비용보다 적게 지불되기 때문인 것이다.

24) Deakin, B. M.(1996). The youth labour market in Britain: the role intervention. Cambridge: the Univ. of the Cambridge Press 참조

25) Recruitment Subsidy for School Leavers

26) Youth Employment Subsidy

27) Work Experience Programme

28) Youth Opportunities Programme

〈표 IV-2〉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실업자수와 총 실업자 수 비교

(단위: 명, %)

년 도	학업중단청소년 실업자(1)	총 실업자(2)	(1)/(2)%
1970	9,000	582,200	1,5
1971	14,800	758,400	2,0
1972	19,000	844,100	2,3
1973	7,000	597,900	1,2
1974	13,300	599,700	2,2
1975	45,300	935,600	4,8
1976	81,600	1,304,600	6,3
1977	99,800	1,422,700	7,0
1978	93,700	1,409,700	6,6
1979	78,000	1,325,500	5,9
1980	120,100	1,715,900	7,0

출처: 영국 고용부 관보와 고용관보

이러한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현재 청소년시설에 위탁되어 방치되어 있는 한국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한국정부가 어떻게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영국정부의 청소년노동 시장에서의 적극적 개입의 방법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2)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고용 대책

(1)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지급

영국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조금 계획은 1975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이 달에만 영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65,000이 실업자로 등록되었다. 고용주에게 6개월 고용조건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1인 주당 £5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1976년 6월말까지 29,000명이 고용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5,000명의 수혜자가 도중하차 하였고, 일부 고용주가 보조금이 성인

여성 근로자 대신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대체되는 대용책으로 쓰는 바람에 보조금의 효과를 본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20%에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예상 밖의 저조한 보조금 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영국정부는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하였다.

(2)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

청소년고용 보조금은 16~20세 청소년들 중에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에게 해당된다. 영국정부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제도에서 배운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제대로 고용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지급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보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의 조건이 보다 명확해졌다. 즉, 20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26주 동안 일주일에 £10의 보조금이 고용주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고용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고용기간동안 전일제 완전고용이어야 하고, 국내의 사기업 모든 고용주들에게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도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일정기간 고용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적응정도에 따라 고용주가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청소년고용 보조금 제도는 1976년 10월 1일부터 1978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종료 즈음에는 38,497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았고, 정부는 £87억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나타난 제도의 효과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75%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조금에 상관없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로체험 프로그램(WEP)

이 프로그램은 16~18세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산업체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6년 9월에 시작되어 1978년 초에 종료된 프로그램으로 위의 청소년고용 보조금 제도와 경쟁을 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8년에 시작된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의 부분 프로그램으로서 지속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트레이너는 면세와 의료보험비를 떼지 않고 26주~52주까지 주당 £18을 받으나, 고용주는 보조를 받지 못한다.

<표 IV-3> WEP 참가후 고용 상황(1978)

(단위: %)

	모든 참가자	조기 중단자	프로그램 완료자
WEP고용주 완전고용	38	30	47
타 고용주 완전고용	23	41	6
실업	35	26	43
부분고용, 교육수료	4	3	4
합 계	100	100	100

출처: 고용부 관보(1978) p. 9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은 1977년 말 44,351개소였고 총 47,500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 근로체험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근로장소에서 계획된 다양한 근로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위의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의 61%는 근로체험 후나 체험 도중에 완전 고용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시장에 대한 초기의 정부개입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직업훈련은 직접 정부기금으로 지원하지는 않았고, 성공여부는 제한적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제도의 경우도 모든 학업중단 청소년이 목표 대상이었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지엽적일 수뿐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는 16~20세의 모든 실업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한계가 있었고 더욱 성공적일 수 없었다. 이에 비해 근로체험 프로그램(WEP)은 보조금이 지급된 근로체험 후 취업할 수 있었던 참가자들로부터 성공적임을 판단 받을 수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근로 체험은 직업훈련을 포함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learning by doing’이 수행 되었다.

(4)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

1977년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업은 99,800명에 달했고 이는 전체 실업자의 7.0%에 해당되었다. 영국정부의 인력봉사위원회(MSC: Manpower Service Commission)는 1978년 3월에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을 출발시켰다. 그해 4월 16~18세 청소년 29,3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9월에는 58,600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표 IV-4> YOP 참가자 및 연평균 직업훈련자 수(1979~1983)

(단위: 명)

년 도	YOP 참가자	연평균 직업훈련자 수
1979	162,700	53,906
1980	216,000	77,900
1981	360,000	127,500
1982	553,000	188,400
1983	543,300	241,700

출처: 인력봉사위원회 레포트 1982/83(1983) pp. 11~13

이 프로그램은 그 이전의 청소년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주도의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규모가 컸다. 이 프로그램은 5년간 총 1,834,700이는 위의 <표 IV-4>에서 잘 볼 수 있다.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본 계획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근로체험 장소들 : 대다수의 장소들은 고용주의 사유지들이고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장소들은 6~12개월 동안 직업훈련 워크숍들이거나

지자체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혹은 자원봉사 단체들이다.

② 근로 준비 장소들 : 13주에 걸친 단기간 직업훈련으로 기능센터, 평생 교육 전문학교, 고용주 사유지에서 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른 준비 장소 들로는 13주 보충과정이나 준비과정 코스나 평생교육센터 또는 재활센터에 서 독해나 계산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더 단기간 과정으로 2~3주 동안 선택적 근로체험과 기초적 기능들을 배우게 된다.

③ 새로운 직업훈련 장소들 : 이 장소들은 YOP에서 1982년까지는 제공되 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직업훈련 계획(YTS: Youth Training Scheme)으로의 옮겨가는 부분으로서 제도화되었다. 이 장소들은 12개월 동안 지원자들의 장소나, 직업훈련 워크숍이나 정보기술센터, 평생교육 전문학교들과 같은 곳 으로 분할되었다.

<표 IV-5> 3가지 유형의 YOP 참가자 수(1978~1983)

(단위: 명, %)

	1978/79	1980/81	1982/83
근로 체험	128,200 (79)	304,200 (84.6)	393,400 (72.4)
근로 준비	34,000 (21)	55,500 (15.4)	67,800 (12.5)
새로운 직업훈련	-	-	81,900 (15.1)
총 YOP 참가자 수	162,200	360,000	543,100

출처: 인력봉사위원회 레포트 1982/83(1983) pp. 11~12

1978년 프로그램이 시작할 당시에 이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의 참가 자 중 70%가 넘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주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 19,50가 지불되었다. 1982년에는 이 보조금이 £ 25로 증가되었다. YOP의 근로체험과 근로준비에 참가한 자들의 훈련은 고용주들에게 남겨지게 되었 다. 반면에 1982년부터 제공된 새로운 직업훈련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의 일환으로 고용의 장려와 촉진의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되었다. 노동봉사위 원회의 조사에 의해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이 수행된 6개월 후 참가 청 소년들의 고용상황은 아래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

아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은 사기업과 지방정부, 공공부문에서 근로체
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978
년부터 1983년간 1,834,7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표 IV-6> YOP 참가후 청소년 고용 상황(1980~1983)

(단위: %)

	1980/81	1981/82	1982/83
완전고용	52	47	47
완전 교육	3	3	2
MSC의 다른 계획	7	8	8
실업	33	40	38
기타	5	2	5
합계	100	100	100

출처: Bedeman and Courtney(1982), pp. 440-3

3)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시사점

위에서 지금까지 서술된 영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고
용을 위한 역량개발 대책은 한국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고용문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008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학업
을 중단한 학교중도탈락자 수는 73,493명에 달한다. 또한, 2009년 8월 현재
15~19세의 등록된 청소년 실업자 수는 2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
용에 관하여 한국정부에서는 노동관련 부처도, 교육관련 부처도, 청소년관련
부처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영국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지
급,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 근로체험 프로그램(WEP), 청소년 기회 프
로그램(YOP)과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열
매을 맺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시도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
조금(RSSL) 지급 제도와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는 크게 고용의 실효
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행된 근로체험 프로그램(WEP)

에서부터는 프로그램의 종료 시 참가 청소년의 61%가 완전고용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서 실시한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에서는 16~17세의 많은 수 어려운 청소년들이 취업이 되었고 참가자의 60%가 취업이 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고용주에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지급 제도가 1976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을 때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수가 29,000명에 불과했으나, 1978년에 시작해 1983년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이 종료될 시 누적 참가자는 1,834,700명이나 되었다.

현재 한국의 7만 명이 넘는 학교중도탈락자들에게 영국에서와 같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도 한국정부에서는 영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역량개발과 기업에의 고용 촉진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보이지 않는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버려지고, 노동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라 교육관련 부처는 미루고, 학생들에 관한 문제는 교육관련 부처 문제라고 노동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시설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장소와 인력은 청소년영역에서 제공되지만 운영과정은 교육 영역에 해당되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대안학교에서는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조되지만, 운영비는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보조되고 있어 항상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 놓여있다. 기본적으로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의 대상이고, 부모가 교육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의무는 정부에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모든 기본적인 교육경비는 교육관련 부처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 다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인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교육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기본 예산을 투입하고, 청소년 및 고용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이들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대다수이다. 학교가 싫어 학교를 뛰쳐나온 이들에게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교과과정보다는 이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보다 유효하고, 필요하다. 이들에게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에 일정 보조금을 주어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V.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방안

1.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
2. 역량개발 정책의 전략
3. 역량개발 정책의 모형

V.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방안

1.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

연구진은 전국의 15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을 면접한 결과에 대한 소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들 학교들의 특성을 종합해서 6가지로 서술한 바가 있다. 이를 다시 되돌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15개 대안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의 결과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도전과 고민을 가지면서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환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중심으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등의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대안학교의 이념에 맞게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의 미흡과 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해 새로운 조직형태나 관계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모든 대안학교들이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있고, 이는 학교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수업료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후원, 기금사업 등이 이들의 주된 재원인데 어느 것 하나 지속적인 것이 없어 교과과정의 운영에 있어 학교운영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다섯째, 대안학교의 교육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

적 관계에서 볼 때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의 관계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할 내용들이 과제로 주어져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일반교과와 특성화교과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반교과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것을 고려할 때에 이들에게는 특성화교과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일 수 있고, 이들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담당자들을 면접한 결과를 고려하여 이곳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겠다. 하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역량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십 등의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이다. 이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살펴보자.

1)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학교복귀를 위한 역량개발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대다수의 대안학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이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들의 설립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안학교의 특성상 공교육의 “억압구조와 결핍구조”(이수광, 2005)를 벗어나 교육과정의 자율과 자유를 학교설립의 표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제도권 안에 들어온 특성화 대안학교와 같은 학력인정 대안학교들은 점차 내신성적에 몰입하게 되고, 대학의 진학률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공교육의 대안으로 시작했던 대안학교들이 점차 또 다른 진학의 대안으로 변종되어가고 있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인 대학진학과 이상적인 중등교육의 두 개의 대안이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만을 기계적으로 준비하는 공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용기있게 대안학교를 선택하여 이상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모순

과 자기분열의 자각증상으로 점차 내면의 갈등과 혼란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결국, 냉정하고 가혹한 상급학교 진학의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교육 과정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서 온 대안학교 학생들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행 교육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대안 아닌 어중간한 도피형 대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현실은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점차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많은 수의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진학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것과 달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진학으로부터의 갈등과 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이곳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진학으로의 동기부여가 매우 낮기도 하고, 교사인력 등을 볼 때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대안학교의 목표로 설정할 여건과 능력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가 제도권 학교나 학원과 진학을 위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청소년시설은 애초부터 청소년정책의 이념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금의 공교육이 지식 교육에만 치우쳐, 엄밀히 말하자면 대학입학시험에만 치우쳐 청소년들의 덕성과 체력이 학교에서 습득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학교 밖의 청소년정책영역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에서는 지식을 습득하여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목적에 원초적으로 맞지 않다.

한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졸업해도 대부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²⁹⁾ 학생들 스스로가 학업을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결국 공교육이 포기한 청소년들이

29) 조사대상의 대안학교들 중에서 강북의 난나대안학교와 서대문수련관의 도시속작은학교 두 곳은 교육청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다. 진학을 위한 학교교육이 싫어서 나온 학생들에게 다시 진학을 위해 대안학교를 다니라면 이것은 말하자면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진학을 위해서 이들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청소년시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는 찾기 어렵다. 학생들의 성취동기도 부족하거나 교과, 교재, 교육비용, 시설 등의 진학을 위한 교육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다. 만일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청소년시설에서 나와서 특성화 대안학교로 독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진학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대학진학이나 기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제도권 학교나 학원과 같은 형태의 교과과정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공통 주요 교과목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향후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학교복귀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거나, 교양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지만 차차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음을 정돈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를 준비하는 과정과 내용을 담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2)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찾아온 청소년들은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실토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이곳에라도 보내지 않으면 나가서 사고 칠까 염려되어 여기에 데려다 놓는 것이라고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들은 정규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따라가기 싫어서 학교를 뛰쳐나온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량개발의 길에서

완전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최종적으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원래 ‘대안(alternative)’이라는 말이 양자택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학교를 포기한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다. 이들에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도피처이기도 하고, 보호소이기도 하고, 소속감의 대용물이기도 하며, 부모와의 최종 타협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할 것이다. 어쨌거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이들에게는 소외감과 무력감, 반항심, 가출, 이탈, 비행, 자살 등의 극단적인 자기부정과 자포자기, 자해적 행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꿈이 꿈만이 아니고 실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꿈의 실재는 다름 아닌 직업훈련을 통한 이들의 역량개발이고, 역량개발의 최종목표는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취업을 하는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교육의 광기에 사로잡혀 눈이 먼 것도 결국 대한민국의 학벌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업을 가져 치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도 지금의 수학능력으로는 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우니 대안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일찍부터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들을 돕는 일이 아닌가?

제도권 학교를 다니거나 특성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이 인정되고, 또 이들은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아 졸업하게 되면 직업을 얻는다. 이들에게는 시간이 문제지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대안학교 학생들보다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고, 직업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안학교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인성을 함양하고,

취미와 적성을 개발하며,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교과과정을 운운하는 것은 이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치스러운‘대안’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안학교 교사는 물론,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일이다.

우리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교육세를 받고 있으면서 국가의 책무 대상인 이들을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대하는 지원정책도 학부모들의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책무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묶어두는 의미정도로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바로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 전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수는 20개를 넘지 않고 재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³⁰⁾ 하지만 이들 대안학교가 현재 학업을 중단하고 실업자로서 방황하고 있는 22,000명의 15~19세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시켜주어 취업과 연계해 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전국적으로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공공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업, 제3부문 등이 함께 이들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면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찾고 그 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0)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소수 인가 대안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운영난을 겪으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역량개발 정책의 전략

1) 진학 정책방향과 직업역량개발 정책방향의 선택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정책방향이 주요 공통 교과목 수업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복귀와 직업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면 이제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책적 전략의 문제이고 기획의 문제이다. 전략적 기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안학교의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을 진학 및 학교복귀에 둘 것인지 아니면, 직업능력의 개발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자택일의 정책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권 교육을 중단하고 대안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다시 제도권 교육으로 복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 사례는 많지 않다. 이 대안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은 일단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의 학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보다 더 자녀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직업역량개발과 상관없이 오직 상급학교로의 진학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뿐이 없다. 하나는 이들에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를 치러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6개월~1년 간 대안학교에 머물면서 안정을 찾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다시 제도권 공교육으로 복귀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학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한 번 쉬었다 다시 경쟁체제의 제도권 교육과 경쟁을 하거나 진입하는 것이라 그 결과에 대한 효과와 기대치는 낮을 수뿐이 없다. 학교복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지 졸업장만 받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측의 기대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기획으로서의 정책방향 선택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의 내용은 수요자 측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방향은 비록 직업능력의 개발로 맞추어져 있지만,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은 항시 열어 놓고 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청소년 육성에 따라 지(知), 덕(德), 체(體)가 조화된 전인적 청소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설립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오전에는 공통 주요 교과목들을 학생들의 교양과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배우도록 하고, 오후에는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운영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적 기획으로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직업역량개발 정책을 위한 전략

(1) 직업역량개발 정책을 위한 전략적 요소들

이미 앞의 독일의 사례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을 수 있으나 이들에게 공통된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냐가 중요하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고, 정책의 전략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을 열거하자면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센터 개설 및 운영,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위센터(Wee center)와 연계 직업훈련 Wee school 대안학교로의 전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 요소들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청소년시설에서 위탁받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는 일은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노동부, 법무부³¹⁾와 관계되어 있다. 위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진로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들의 진로와 고용문제가 자신들의 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히 비인가 위탁형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잠시 묶어 두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장소 정도로 편협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장차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현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교육의 공간과 지도인력은 청소년정책 영역으로부터 제공되고, 제반 교육행정은 교육정책 영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에 상호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안학교에서 청소년의 직업능력을 개발

31) 법무부와는 연계·협력은 특별히 청소년시설이라 간주할 수 있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기에 고려되었다.

하는 데에 주력한다면 노동부도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위에서 구상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교육과 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시설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도 함께 협력적 지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 과학기술부의 주도하에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의 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직업역량개발과 취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 정부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정책의 효용성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청소년비행이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염려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부처들의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와 업적주의로 인해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에서 서술한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에서는 무엇보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③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교사 수는 재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50명을 넘지 않으므로 1~2개의 학급 운영규모로 교사 수를 고려할 수 있다. 주로 국어, 수학, 언어 등 오전의 기초 공통 교과목 과정에서는 사범대학 출신의 현직교사나 교사 지망생, 은퇴인력 등의 전문 교과교사들이 배치되어 오전에 교과목 교육이 수행되도록 한다. 또

한, 오후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하여 직업과 연계한 수업들을 기획하고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전문 강사 교사를 섭외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심리적, 정신적, 인간관계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전과 오후의 교과과정에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취미와 적성, 인간관계 등 자신을 찾아가는 수업들이 기획되어 교사나 청소년지도사의 지도 아래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적절한 교사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문적 능력과 인품을 갖춘 교사의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연계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참여자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이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결속력 있는 학교행정과 학교지도인력 간 협의, 노동관청과의 좋은 관계형성, 지속적으로 직업을 준비하는 대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 기업들, 정부의회, 경제지원기관들, 공공단체장들과의 긴밀한 접촉 등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⑤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모든 정책의 수행이나 프로그램의 진행에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보통 공공부문의 예산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예산이 지출된다. 지난 2006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2008년 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됨

으로서 비록 미흡하기는 하나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 하반기에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사업’도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기에는 예산이 태부족하므로 다양한 재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교육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의 공적자금 투입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사회공헌기금, 제3부문에서의 지원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재원마련의 근거를 명시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시급하다.

⑥ 폴리텍(polytech) 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재학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길을 열어주는 직업역량을 키워주는데 그 설립과 운영의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러한 대안학교도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본연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편성할 때에 전문화, 특성화된 직업연계 교과과정이 주를 이루더라도 고등교육을 위한 최소 기초교육은 이수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훈련받은 기능과 연계된 직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향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교과 교육과정은 이수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안학교를 졸업 시에 자신이 직업을 얻을 지, 직업훈련을 받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이 직업과 관련된 전문화, 특성화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비록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지만, 기초교육과 직업전문교육을 받았기에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또, 더 많은 직업관련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하여 2년제 폴리텍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력인정의 효과는 경영에 어려움을 가

지고 있는 지방 사립전문대학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청소년 및 청년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취업이나 진학의 길을 잃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제의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

⑦ 직업역량개발 전문 인력풀 구성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을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성공의 여부는 재정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에 있다. 하지만 교육 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이러한 직업훈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느냐가 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각 대안학교들은 학생들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대안학교 운영주체는 이들을 시간제 강사로 운영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유희인력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⑧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종합센터 개설 및 운영

현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위에서 제안한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턴십종합센터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도시속작은학교는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센터를 따로 두어 잘 운영하고 있어 앞서가는 모델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개별적인 인턴십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훈련 인턴십에 관한 모든 관련업무들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현재의 대안학교종합센터 내에 ‘청소년인턴십종합센터(가칭)’를 부설로 설치해서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강사들과 인턴십 대상 업체들을 각 대안학교에 중개하며,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등록 및 취업연계 등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⑨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목적은 장차 이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인턴십을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 종류의 기업이나 사업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앞에서 서술한 독일의 사례에서는 recycling 회사나 건설회사와의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보았다. 또, 영국의 경우에서는 정부가 청소년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도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인턴십 과정 이후에도 같은 기업이나 업체에 취업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제안한 ‘청소년인턴십종합센터(가칭)’는 이와 같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도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에 다양한 직종의 기업이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제휴하여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질 높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인턴십을 마친 후에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는 해당 기업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부는 교육부와 연계·협력 차원에서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협력하도록 한다.

⑩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 인력, 재정지원,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대안학교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을 때에는 대안학교 운영이 실패로 돌아갈 수뿐이 없다. 사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찾아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휴식과 안정, 숨고르기, 정체성을 찾는 일들이다. 이들이 다시 정신을 차릴 때 즈음해서 이들의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과 직업훈련의 인턴십제도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대안학교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참여동기를 유발시켜 학생들을 직업훈련에 참여시켜야 한다. 대안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직업훈련 인턴십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잘 이해시키고 자녀들에게 잘 권면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는 이에 관련된 세미나나 강좌,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⑪ 위센터(Wee³² Center)와 연계 직업훈련 특성화 대안학교로의 전환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위기학생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다중의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Wee Project)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단위학교에서는 부적응 및 위기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Wee Class)을 운영하고,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Wee Class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담당하는 Wee Center를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기숙형 학교 Wee School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사례가 없지만 기숙형 학교 Wee School은 가장 문제가 많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호,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들은

32) ‘Wee’의 의미는 ‘We(우리)+Education(교육)’과 ‘We+Emotion(감성)’의 복합어라고 한다.

대상으로 심리적, 정신적 치료와 다양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Wee School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은 이른 바 문제청소년들을 따로 격리시켜 수감하는 소년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이번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실태조사 대상에도 4개의 소년원이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이 중 세 곳은 정보통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향후 Wee School은 대안학교의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게 Wee School의 기능을 부여하고 Wee Center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학력을 인정받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연계하면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Wee School을 새로 마련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³³⁾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정책방향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학교로 복귀하는 방향과 인턴십과 같은 직업훈련을 받아 그들의 직업역량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취업을 하게 하는 두 방향이다.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이 향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정책방향이 보다 취업에 목표를 갖게 된다면 교과과정도 이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향후 Wee School을 확산시켜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위험군의 학생들을 다시 교육적 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쌓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Wee School 기능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떠맡아 학생들의 직업훈련을 특성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스스로넷 미디어스쿨과 같이 특성화된 직업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성화 대안학교로서의 발전이 가능하다. 즉, '1 대안학교, 1 직업훈련'의 교육과정으로 서울시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하여 청소년시설들의 특성에 맞게 교과과정을 특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33) 이 경우 청소년수련관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므로 재택형 Wee School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원이나 가출청소년쉼터에서는 숙박이 가능하므로 기숙형 Wee School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미디어 및 컴퓨터 계통의 전문가, 가수, 연기자, 디자이너, 영화제작사, 조리사, 제과·제빵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이용사, 애완동물미용사, 목수, 정비사, 사진사, 양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make-up artist*), 무용가, 관광안내자, 원예사 등의 다양한 직업훈련이 각 청소년시설에서 한 가지씩 특화되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전환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대안학교를 가면 어떤 특화된 직업연계 훈련이 교육된다는 사실이 일반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이 확고하게 정착되면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화,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각각 특성화되고, 다양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특성화 대안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공급자나 수요자나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1998년 정부가 부진한 실업계 학교운영을 진작시키고자 만든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학교가 이미 2008년 통계로 전국에 154개가 있지만 기존의 전문계(구 실업계) 학교들과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³⁴⁾ 따라서 이렇게 제도권 교육에서의 전문계 특성화 학교도 거부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특성화 교과과정은 기존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권 특성화학교와 반드시 차별되어 대안학교라는 근본이념과 취지를 살려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제도권의 전문계 특성화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면 이러한 길도 열어주도록 한다.

⑫ 관련 법·제도의 개선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요소들이 기능을

34) 현 정부의 마이스터고도 전문계 특성화고의 효과가 미흡하자 이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자 외고나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고 전문계 특성화고를 변형시킨 형태에 불과하다. 강영혜(2008).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25 참조

체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년 누적적으로 늘어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7월 31일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에 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포하였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 9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따로 규정함.
- 다. 교육감의 판단 하에 교사와 체육장의 임대 등이 가능하게 하되, 교사의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만 임대를 허용함.
- 라. 설립인가 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마.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바.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사.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및 사회를 이수하여야 함.
- 아. 자체개발한 도서는 해당 학교에 비치하여야 함.
- 자.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차.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

고, 대안학교의 경우 타 학교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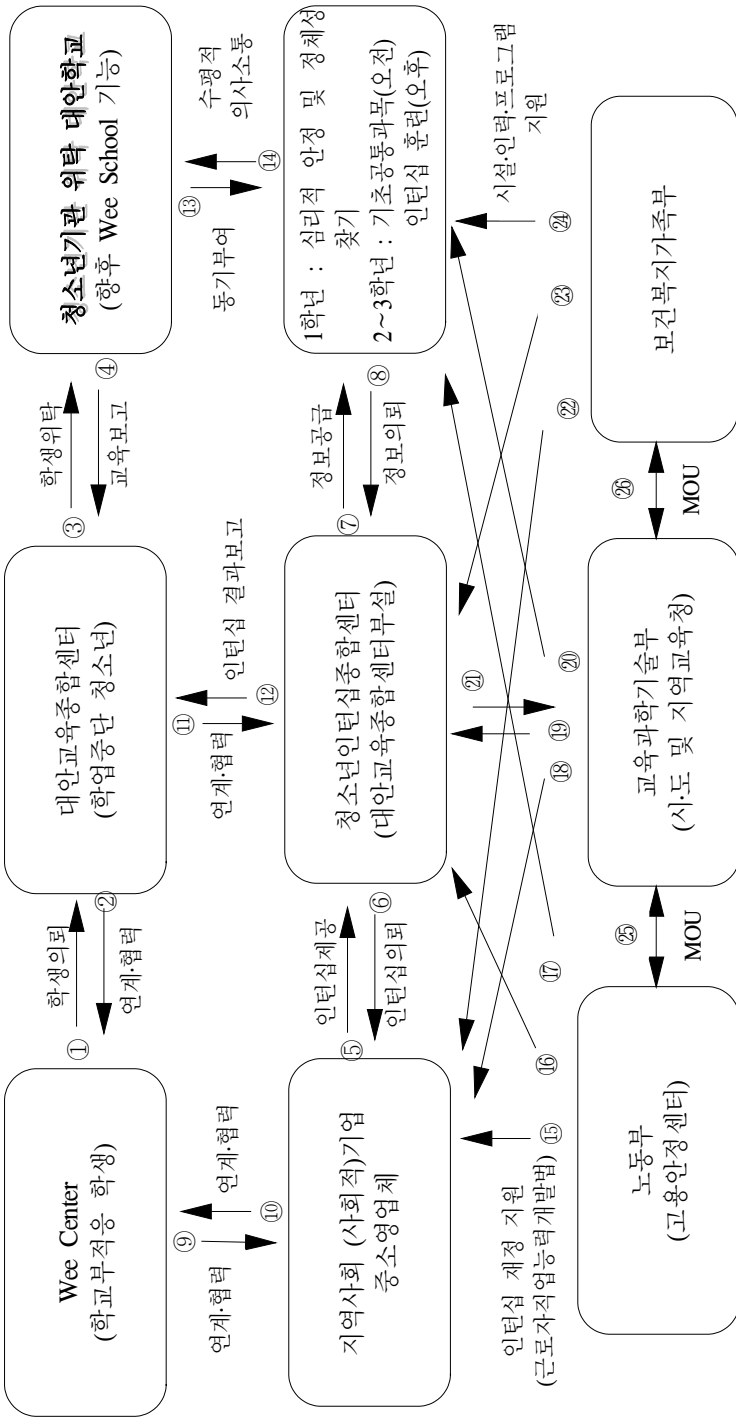
새롭게 입법예고된 규정에서 기존의 구정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안학교에 수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학생들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과정에 직업과 관련된 산학겸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구구정에 따르면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으면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스스로넷 미디어스쿨과 같은 대안학교도 현 상태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가 기준을 개선하여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역량개발 정책의 모형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종합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자면 아래의 [그림 V-1]과 같다. 그림의 번호 순서에 따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과 ②는 Wee Center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안교육종합센터에 의뢰하고 접수하여 수용하게 되는 연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③과 ④는 향후 대안교육종합센터 16개 광역시·도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대안학교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Wee Center나 학부모들로부터 의뢰 받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한다.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 대안학교들은 위탁받은 학생들의 교육상황과 결과를 대안교육종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① 재정지원 ② 인턴십 참여학생 재정지원 ③ 협력업체 선정 ④ 운영 지원 및 평가 ⑤ 교육비 지원 ⑥ 결과보고 ⑦ 연계·협력 ⑧ 연계·협력 ⑨ 연계·협력

[그림 V-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모형

⑤와 ⑥은 대안교육종합센터 내에 부설된 인턴십종합센터는 지역사회를 위주로 일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체 등에 대안학교의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공개적으로 의뢰하여 해당 기업이나 업체는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고 인턴십종합센터에 등록을 하여 인증의 절차를 받는다.

⑦과 ⑧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직접 인턴십종합센터에 자신이 원하는 인턴십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의뢰하거나 대안학교를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인턴십종합센터는 개별적인 의뢰에도 응답을 하고, 상설적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인턴십에 관한 정보를 대안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⑨와 ⑩은 Wee Center의 학교부적응 학생은 대체로 학교에 적응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므로 보통은 대안교육종합센터에 학생들을 학력인정 위탁형 대안학교에 의뢰하도록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및 업체들과 연계·협력 관계를 맺어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⑪과 ⑫은 대안교육종합센터 내에 인턴십종합센터를 부설로 설치하여 양기관이 연계·협력하여 학력인정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도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⑬과 ⑭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교육적 관계형성이다. 대안학교는 학교를 찾아온 청소년들은 대체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교를 떠나온 학생들이므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1학년 과정에서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시기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으로부터 안정을 찾으면 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진로탐색의 교육과정을 밟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오전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기초공통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오후에는 직업역량을 개발하는 인턴십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⑮와 ⑯,⑰은 노동부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인

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에게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인턴십을 제공받는 학생들도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나 대안교육종합센터 부설의 인턴십종합센터를 통해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법이 정하는 소정 액수의 비용을 지급받도록 한다.

⑱, ⑲, ⑳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교육청 산하에 대안교육종합센터를 설치하고 부설로 인턴십종합센터를 설치하며, 지역교육청 산하에도 인턴십종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들을 평가하도록 한다. 대안교육종합센터와 인턴십종합센터는 대안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직업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의 학업중단 중학생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세의 환급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들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009년 7월 31일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에 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규정이 더욱 대안학교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열어놓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서 직업역량을 개발하는 학생들에게도 학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㉑은 대안교육종합센터나 인턴십종합센터는 그들의 업무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㉒, ㉓, ㉔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청소년기관에서 위탁받은 대안학교를 통해 돌볼 책무가 있다. 청소년기관이 비록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이라고 할 때에 이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기관이 현장에서 육

성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에게도 정책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과 업체들에게 지역사회, 기업, 정부, 민간단체, 대안학교, 대안교육종합센터, 학생들이 함께 연계·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역량 개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안학교들을 통하여 직업역량을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실업문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정책적·재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MOU를 체결하여 상호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현재 80,000 명에 가까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광역 시도 및 중소도시에는 부족하므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청소년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청소년기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 대안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민관 기관들의 상호 연계·협력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학업부적응 학생들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그들의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VI. 결론 및 제언

대안학교는 기존의 공교육 제도를 통한 학교교육에 또 다른 선택의 교육을 찾고자 성립된 학교이자 제도이다. 대안학교의 형태는 교육의 목적과 이념을 달리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다양하다. 지난 1997년 최초로 간디청소년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대안학교가 문을 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00개가 훨씬 넘는 대안학교들이 한국의 곳곳에 자리잡고 나름대로 교육적 이상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는 제도권 안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안학교들도 있고, 제도권 밖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들도 있다. 이러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로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설립되기도 하며, 안간힘을 다하여 사명을 붙들고 버티고 있기도 한다. 이들 중 연구진이 일일이 수작업 하여 알아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수는 청소년시설 위탁이 7개교, 청소년단체가 12개교, 소년원 위탁 대안학교가 11개로 총 30개이다.

연구진이 방문한 전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이들 중 청소년시설 7개교, 청소년단체 4개교, 소년원 4개교로 총 15개 기관이었다. 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들을 면접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의 결과‘대안학교’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도전과 고민을 가지면서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환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관련부처들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등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무엇보다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의 미흡과 재정의 취약함으로 존폐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로, 모든 대안학교들이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요인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사실이다. 다섯째로, 이들 대안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일반교과와 특성화교과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특성화교과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길은 두 방향이다. 하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역량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십 등의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역량의 개발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위에서 서술한 실태조사를 종합한 결과와 함께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한 번 실패한 경험도 있고, 언제라도 다시 할 기회는 차후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탁 대안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 자립성을 찾기 위하여 무엇보다 직업역량의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서 제언하자면 아래와 같다.

■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

청소년시설에서 위탁받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는 일은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노동부, 법무부와 관계되어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진로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 관계부처 간 연계 · 협력 ■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하에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기관 대안학교 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청소년관련 부처도 함께 협력적 지원 관계를 형성하고,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협력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교사는 사범대학 출신의 현직교사나 교사 지망생, 은퇴인력 등의 전문 교과교사들로 배치하여 오전수업에 교과목 교육이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오후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하여 직업과 연계한 수업들을 기획하고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전문 강사 교사를 섭외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수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연계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결속력 있는 학교행정과 대안학교 지도인력 간의 협의, 노동관청과의 좋은 관계형성, 지속적으로 직업을 준비하는 대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 기업들, 정부의회, 경제지원기관들, 공공단체장들과의 긴밀한 접촉 등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 요소이다.

■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 마련 ■

2006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노동부의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08년부터 시행됨으로서 비록 미흡하기는 하나 대안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민간기업 등에서의 사회공헌기금, 제3부문에서의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시급하다.

■ 폴리텍(polytech) 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훈련 받은 기능과 연계된 직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향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교과 교육과정은 이수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안학교를 졸업 시에 자신이 직업을 얻을 지, 직업훈련을 받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지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직업역량개발 전문 인력풀 구성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을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성공의 여부는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느냐가 하는 것에 성패가 가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대안학교들은 학생들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종합센터 개설 및 운영 ■

현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위에서 제안한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턴십센터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안학교종합센터 내에 ‘인턴십종합센터(가칭)’를 부설로 설치해서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강사들과 인턴십 대상 업체들을 각 대안학교에 중개하며,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등록 및 취업연계 등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도록 한다.

■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위에서 제안한 ‘청소년인턴십종합센터(가칭)’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가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에 다양한 직종의 기업이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제휴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질 높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인턴십을 마친 후에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는 해당 기업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부는 교육부와와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 인력, 재정지원,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대안학교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을 때에는 대안학교 운영이 실패로 돌아갈 수뿐이 없다. 대안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직업훈련 인턴십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잘 이해시키고 자녀들에게 잘 권면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 Wee Center와 연계 직업훈련 특성화 대안학교로 전환 ■

Wee School은 대안학교의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기존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게 Wee School의 기능을 부여하고, Wee Center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Wee School을 새로 마련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 법·제도의 개선 ■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요소들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년 누적적으로 늘어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9년 새롭게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으면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도 필요한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도록 인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박창남·윤옥경(1999). 고졸청소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강영혜(2008).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1996). 새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방안 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경상북도교육청(2008). 경상북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 교육규칙.
- 교육과학기술부(2008). '08년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계획(안).
- 교육인적자원부(2003). 대안교육 확대, 내실화 추진계획(안).
-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안교육백서 1997-200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시설) 현황 및 인가 대안학교 현황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2009).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고병현(1996). 대안교육운동에 대하여.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안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자익 외(2005).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새로운 학교. 서울: 문음사
- 김기현 외(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유성렬(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대현 외(2007). 대안학교 통합학습 운영실태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25권 2호, pp. 91-119
- 김명신(2002). 대안교육. 서울: 민음사
- 김병길·황궁섭(2001).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의 범주화. 교육철학, vol. 19, pp. 1-17
- 김 민(2000)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이분법을 넘어선 대안교육의 필요성. 작은학교, 큰 그림. (제2차 대안교육심포지움 자료집, 2002. 5. 29).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 김성기(2003).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2), pp. 129-154
- 김준수·하현·이영규(1996).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서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김태연(2007). 특성화 대안학교 정책 평가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선(2008). 위탁형 대안학교의 실재와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구광역시 교육청(2008). 2008년 1월 현재 전국의 대안교육기관 현황.
- 남기석·김영화(2005) 대안교육 수요 결정 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1), pp 89-112
- 김홍태(2002). 일본대안교육의 사례 탐색, 초등교육연구 제15권 1호, pp 87-105.
- 노재은(2005). 사회복지기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의 다체계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안교육종합센터(2009). 서울시 대안학교 위탁기관 현황. 서울: 대안교육종합센터
- 맹영임·김민(20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민들레편집실 엮(2006). 대안학교길라잡이(중등). 서울: 도서출판민들레.
- 박경일·이상주(2004). 대안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 청소년학연구, 11(2), pp 101-116
- 박창남(2002). 실업계고등학교 중퇴청소년의 중퇴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 청소년개발원
- 박창남(1999). 실업계 고졸청소년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산광역시 교육청(2006). 2006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 배은주(2004). 청소년센터 학습의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제7권 2호, pp. 1-28
-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9). 2009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 학교 안내서.
-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4). 학교를 넘어선 학교. 서울: 도서출판민들레.
-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2008). 2008학년도 난나학교 운영보고서.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2009.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스스로넷 미디어 스쿨 안내 자료집.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 서정아·권해수·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정화·김태연(2006).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과정 평가. 홍익대학교 인문과학 제14집, pp. 125-149
- 손민호 외(2005). 주요국 대안교육프로그램 비교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송순재(2006).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성격과 주요 문제, 신학과 세계 56권, pp. 156-201.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 손영이(2004). 도시형 대안학교 사례분석연구 - 이우학교와 하자작업장학교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병훈(2003). 지역사회에서 공교육과 대안교육, 도시와 빈곤 제61호, pp. 16-23.
- 오인택 외(2006). 새로운 학교교육문화운동. 서울: 학지사.
- 윤수종(2007). 대안운동의 현황과 방향, 사회이론 가을/겨울호, pp. 255-287
- 이가원(2003).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의 실태 및 발전방향.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4집, pp. 322-351
- 이경상·유성렬·박창남(2005).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20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이종태·정유성·현병호·이완재(2007).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환(2007). 대안학교 관련 쟁점 분석. 관련 법령에 대한 대안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4), pp. 535-563
- 이병환(2007). 대안교육을 통한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연구. 중등교육연구, 55(1), pp. 69-89
- 이엘리야(2008). 청소년수련시설과 시설 내 대안학교의 공존 가능성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각·이수광(2002). 대안교육 활성화 조건과 연착륙화 전략. 교육행정학연구, 20(2), pp. 237-257
- 이종태(2007). 대안교육 이해하기. 서울: 도서출판민들레.
- 이종태 외(2007). 2006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연구보고서.
- 장희정(2005). 독일 대안학교의 교수이론과 학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분도(2009).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노재봉(2003).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연순(2006). 미국의 대안교육 사례, 교육비평 제21호, pp. 14-33
- 정유성·고병헌·김경옥·방승호·이종태·정만교·정연순(2008).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정유성·이종태·오정숙(2008). 대안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자하(2007).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흥식·김경준·김경호(1999).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석민(2006). 대안학교의 개념적 준거 탐색. 교육학논총, 27(1), pp. 1-19
- 최호성·박창언·김희용(2007).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제55권 1호, pp. 181-201
- 푸른꿈청소년상담원. 2008. 2008 운영보고서.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 하태욱(2008). '평준화 교육을 흔드는 정치적 논리에 대하여', 민들레 (통권 56, 2008년 3~4월호).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 하태욱·최경미·강옥희·이경희·장운재(2008). 비인가 대안교육현장 교육과정 운영 연구. 대안교육연대.
- 허정숙(2008). 대안학교의 학교운영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국(2008). 위탁형 대안학교에서의 학생 변화 과정 이해에 관한 연구 : “도시속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American youth policy from(2003). *Youth work, youth development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ing to employment in england : impressions from a study mission

- Aron, L. Y.(2006). *An overview of alternative education*. U. S. Department of Labor.
- Borchert, M.- (Hrsg.)(2003). *Freie Alternativschulen in Deutschland*. Marl: Verlag Bundverbandes der freien Alternativschulen in BRD.
- Brown, L. H. Beckett, K. S.(2007). *Building community in an alternative school*. Lang Pub Inc.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Brücken in die zukunft : Kompetenzagenturen lotsen für besonders benachteiligte Jugendliche in Beruf und Gesellschaft*
- Christe, G.(1999). Perspektiven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jenseits des regulären Arbeitsmarktes und traditioneller Berufsorientierung. Fähigkeiten und Kompetenzen für Alltagsbewältigung.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pp. 129 ~ 137
- Dangel, J. R., Guyton, E. M.(2005). *Research on alternative and non-traditional educ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Deakin, B. M.(1996). *The youth labour market in Britain: the role intervention*. Cambridge: the Univ. of the Cambridge Press
-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Hrsg.). *Jugend '97*. 12. Shell-Jugendstudie. Opladen
- Haller, H.-D. & Meyer, H.(Hrsg.)(1986).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Band 3 : Ziele und Inhalt der Erziehung und des Unterrichts*. Stuttgart: Klett-Cotta
- Leiding, D.(2008). *The hows and whys of alternative education.: Schools where students thrive*. Plymouth: Rowman & Littlefield Education.
- Maas, M.(2003). *Alternativschule und Jugendkultur*. Weinheim: Beltz.
- Mullin, M. H.(1991).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Madison Books.
- Oehlschläger(1986). Lernen in Alternativschulen. in Haller, H.-D. & Meyer, H.(Hrsg.) (1986).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Band 3 : Ziele und Inhalt der Erziehung und des Unterrichts*, pp. 131 ~ 147. Stuttgart: Klett-Cotta
-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wölfter Kinder- und Jugend- bericht(Hrsg.)(2005). *Kooperationen zwischen Jugendhilfe und Schule*. München: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Statistisches Bundesamt(Hrsg.). *Datenreport 2006*.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zug aus Teil II.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treichan, P.(1999). Stellungnahme aus der S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pp. 59~65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청소년인턴십센터 <http://www.yintern.or.kr/>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위원 ◆

맹영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이치열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임종근 강남교육청 중등정책과장
차용복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교장
황인국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 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언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 · 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 · 이용교 · 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 · 김영인
-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해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아·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디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인 쇄 2009년 12월 23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804-5

ISBN 978-89-7816-800-7 (세트)